

06

June 2025
vol. 287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Watches &
Wonders 2025



SANTOS
DE
Cartier



ETERNAL N°5 NECKLACE IN WHITE GOLD AND DIAMONDS.



COLLECTION N°5

CHANEL

FINE JEWELRY

Crafting emotions for 250 years

One invention at a time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혁신적인 발명은
워치메이킹의 예술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완벽함은 오늘날에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이 유산을 기념하여 브레게만의 새로운 브레게 골드로 제작된
클래식 서브스크립션 2025 <Classique Souscription 2025>를
선보입니다.

BREGUET

250 YEARS



Contents

JUNE 2025 / ISSUE.287

08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0_SELECTION 별다른 조명 없이도 빛나는, 시선, 크리스탈 등의 디테일과 네온 컬러 믹스로 완성한 자체 빛방 글리터 패션.

12_우리네 삶의 얼굴을 응시하는 '생각'의 렌즈 지난봄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에서 열린 사진 축제 교토그라피(KYOTOGRAPHIE), 삶의 얼굴을 응시하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예술가들의 시선을 느끼고,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교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시 공간을 다니느라 바쁜 걸음 속에서도 '존재에 대한 단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현장이었다.

14_MAGIC OF METAMORPHOSIS 올해 까르띠에는 다시 한번 마법 같은 워치메이킹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18_ETERNAL ATTRACTION 샤넬을 상장하는 요소들의 정점에 존재하는 숫자 5 모티브를 이터널 N°5 주얼리 컬렉션으로 만나보자.

20_BOLD MOVE 매달 하나만으로 존재감을 발휘하는 펜던트 네크리스.

21_HERITAGE OF INNOVATION 워치스 & 원더스 2025 부스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프로덕트 마케팅 & 이노베이션 디렉터, 산드琳동기(Sandrine Donguy)를 만났다.

22_WATCHES & WONDERS 2025 변화의 흐름과 긴장감 속에서 변함없이 친환경 시간을 기록해나가는 워치스 & 원더스 현장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찾았다.



1904년 루이 끄르띠에는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두몽을 위해 산토스 워치를 탄생시켰다. 이후 기하학적 디자인, 곡선형 흔, 시선을 사로잡는 스크루로 매혹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엘로 골드 배젤, 실버 마감 오픈링 디자인과 검 모양 블루 스플핸즈 등 현재도 아이코닉하고 타임리스한 스타일을 완성한다.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40_THE SWINGING 흔들리지 않아도 좋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끌린지 아이템의 존재감.

41_EVERLASTING SHINE 지난 4월 누도 컬렉션의 새로운 라인의 공개를 알리는 것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포렐라토 CMO 보리스 바르보니를 만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42_GET THE LIST 서머 룩에 품격을 더하는 특별한 선택.

44 SHALL WE CHERRY?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가 다시 만나 그려낸 리에디션,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챕터를 지금 확인해보자.

46_MAKE A CHOICE 데일리 룩에 남성미를 더해줄 남성 향수 리스트 7.

47_TIME OF DREAMS 런던, 상하이, 뉴욕 등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전시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48_THE EVOLUTION OF GREAT HERITAGE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유서 깊은 건축물을 복원하고,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적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50_BLOOMING DAYS 아늑한 집 안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크고 작은 플라워 리빙 아이템.

51_WONDERFUL WELLNESS 아름다운 해변을 간직한 베트남 나트랑에 위치한 빌라 르 코라이에서 경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52_단단한 뿌리 위에 세운 도심의 풍요로운 안식처 아만의 역사가 시작된 태국에 문을 연 아만 나이아트 방콕에 다녀왔다.

54_EDITOR'S PICK 따스한 색조와 자연의 향이 가득한 6월 신상 뷰티 리스트.



Chopard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Let's Go on a Vacation!

스타일리시한 비캉스 룩을
완성해줄 서머 액세서리.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로가 짧고
둥근 사각 프레임으로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디올 파시피크 레탱글러 선글라스
가격 미정 대리 문의 02-3280-0104
탈착 가능한 스트랩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편의성을 자랑하는 라피아 크로세 쇼퍼
백 3백30만원대 풀체인가미나 문의
02-3442-6888.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해 포인트로 연출 가능한 플라워
패턴의 실크 스카프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921. 여름과 잘 어울리는
비비드한 레드 컬러 스트로베리 셰이프에
베르사체 매두사 로고 모양의 링기 씨
디테일이 돋보이는 라 매두사 키 체인
77만원대 베르사체 문의 02-3479-1294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Watches of the Month • 이달 주목해야 할 워치 셀렉션



Maison Unveiled 올해 바쉐론 콘스탄틴은 주요한 퀘스트를
앞두고 있다. 바로 플래그십 스토어 '메종 1755 서울'이 오픈하는 것.
이를 기념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오버시즈 그랜드 캠플리케이션
오픈페스를 선보인다. 올트라-신! 매뉴팩처 컬리버 2755에 오픈페스
캘린더와 투르비옹 레귤러터를 장착한 것이 특징. 문의 1877-4306



Luxe Pink 빈티지 핑크 골드, 아플리케 인덱스, 밀라네즈 링크,
매끈한 세이프, 에지 르클트르의 '리베르소 트리부트 모노페이스 스클
세컨즈' 이아이다. 1990년대 리베르소 모델이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매우 진화하는 중이다. 그중 이번에 출시한 트리부트는 그 당시의
순수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가장 많이 달았다. 문의 02-3449-5912



Blue Lover 소파드 '알파인 이글 스몰' 워치는 브랜드 고유의
알레지던트 블루 다이얼에 스털 브레이슬릿을 더하고 100m 방수 기능을
적용해 여름 워치로 제격이다. 클래식한 로마 숫자 인덱스, 눈부심 방지에
탁월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42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등을 장착했다. 문의 02-6905-3390



Purple Royal 올해 탄생 290주년을 맞이한 블랑팡. 이를 기념해
레이디비드 컬러즈에 고귀한 로열 퍼를 컬러를 입힌 특별한 에디션을 선보인다.
전통적으로 품위와 독립성을 상징하는 퍼를 컬러로 유서 깊은 여성 위치메이킹
해리티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며 블랑팡만의 낙크 페리(cale de nacre perlée)
자개 다이얼을 매치해 우아한 반짝임을 부여했다. 문의 02-3479-1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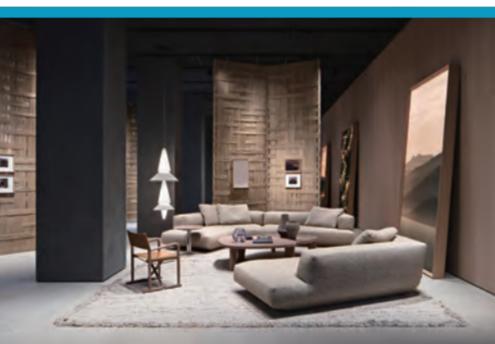
Magical Number

사넬의 상징적인 N°5를 매혹적인
주얼리로 탄생시킨 컬렉션으로
부드러운 곡선 실루엣의 매력적인
숫자 5를 고스란히 담아낸 세이프와
다이아몬드 드롭 장식, 클로즈드 세팅
(closed setting) 방식으로 숫자 5
의 중앙에 자리한 다이아몬드 등
사넬 주얼리만의 우아한 미학을
여실히 보여준다. 브레이슬릿과 링,
싱글 이어링 등 기존 디자인의 엘로
골드 버전은 물론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터널 N°5 링,
초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네크리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New Shape of Quatre

부쉐론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인 콰트로를 네크리스로 만나볼
시간이다. 여러 개의 빈드가 하나의 팬던트로 연결된
'콰트로 클래식 볼로 타이(Quatre Classique Bolo Tie)'
네크리스는 체인을 따라 팬던트를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길이 조절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와 엘로 골드, 핑크 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없이 찬란한 빛을 발한다. 예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쇼아슨(Claire Choisne) 특유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감각에 반짝이는 골드 투브 디테일을
더해 격조적 미학이 돋보인다. 문의 02-772-3508



Flexform in Town!

국내 라이프스타일 시장에서 건고한 위치를 점해온 인피니(infini)
가 이탈리아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플렉스폼(flexform)으로 리빙
애호가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최근 서울 청담동에 자리한 인피니
플래그십 매장에서는 지난봄 밀라노 디자인 주간에 공개된 신제품
라인을 비롯해 '메이드 인 이탈리아'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브랜드 플렉스폼의 주요 컬렉션을 선보이며 공식 론칭을 알렸다.
1959년 이탈리아 북부 브리안자(Brianza) 지역에서 갈림베르티
(Galimberti) 가문이 창립한 플렉스폼은 '기능성과 '편안함'이라는
가구의 근본적인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도 인도니오 치테리오
(Antonio Citterio) 같은 동시대 최고 크리에이터를 간판으로
내세운 우아하고 절제된 디자인 미학으로 유명한 브랜드다.
밀라노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인 안토니오 치테리오는 유수 디자인 브랜드들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럭셔리 문법'을 호텔업계에 기증 있게 반영한
불가리 호텔의 전 세계 지점을 비롯해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
등 유수 호텔의 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아온 거장이다.
플렉스폼의 경우에는 치테리오가 브랜드 전반에 걸친 정체성을
다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례로 그가 2001년
내놓은 '그라운드피스 소파(Groundpiece Sofa)'는 팔걸이를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특유의 안락함으로 꾸준히
인기를 누려온 베스트셀러다. 문의 02-3447-6000



Hermès, the endless line



HERMÈS
PARIS



for her Selection

별다른 조명 없이도 빛나는, 시퀸, 크리스털 등의 디테일과 네온 컬러 믹스로 완성한
자체 빛광 글리터 패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에디터 선정임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시대의 명작

A Timeless Masterpiece

S-Class



Mercedes-Benz



Mercedes-Benz S 580 4MATIC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145kg, 연비 등급: 5등급, 복합: 8.0km/ℓ, 도심: 6.9km/ℓ, 고속: 10km/ℓ, CO₂ 배출량: 215g/km, 자동 9단
*보 여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여비로서 도로 상태, 우천 반면 차량, 정체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로 여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KYOTO
GRAPHIE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우리네 삶의 얼굴을 응시하는 '생각'의 렌즈

'우리 모두가 예술가'라든지 '일상의 예술' 같은 주제를 끄집어낼 때 사진은 참으로 유용한 매체다. 자그마한 휴대폰 하나로 어디서든 '찰나'를 나만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진의 예술성'이라는 해묵은 이슈는 차치하고,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클릭이 '용량 초과의 삶'을 초래하는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는 호모 포토쿠스의 일상을 보노라면 정말로 온전히 집중하고 누려야 할 중요한 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나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곤 한다. 물론 무수한 사진작가들도 지난한 작업 여정을 거친 깊은 고민 속에 그저 몇 것만 건져 올린 결과물을 우리 앞에 내놓을 테지만, 그 선별된 '순간의 예술'로 인해 오로지 대상과 주제에 온 마음과 생각을 할애하는 '응시의 미학'을 차분히 들여다보게 된다. 지난봄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에서 한 달 동안 열린 사진 축제 교토그라피(KYOTOGRAPHIE)는 바로 그런 현장이었다. 사진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던 존 버거가 애용했던 D. H. 로렌스의 '생각'에 대한 문장처럼, '삶의 얼굴을 응시하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예술가들의 생각 어린 시선을 느끼고, 직접 만나 배경 스토리까지 접하기도 하면서, 교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시 공간을 다니느라 바쁜 걸음 속에서도 '존재'에 대한 단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현장이었다.

생각은 삶의 얼굴을 응시하고,
거기 보이는 것을 읽는 일.
생각은 경험에 대해 숙고하고, 결론에 이르는 일.
생각은 속임수나 연습, 이어지는 회피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한 인간.
— D. H. 로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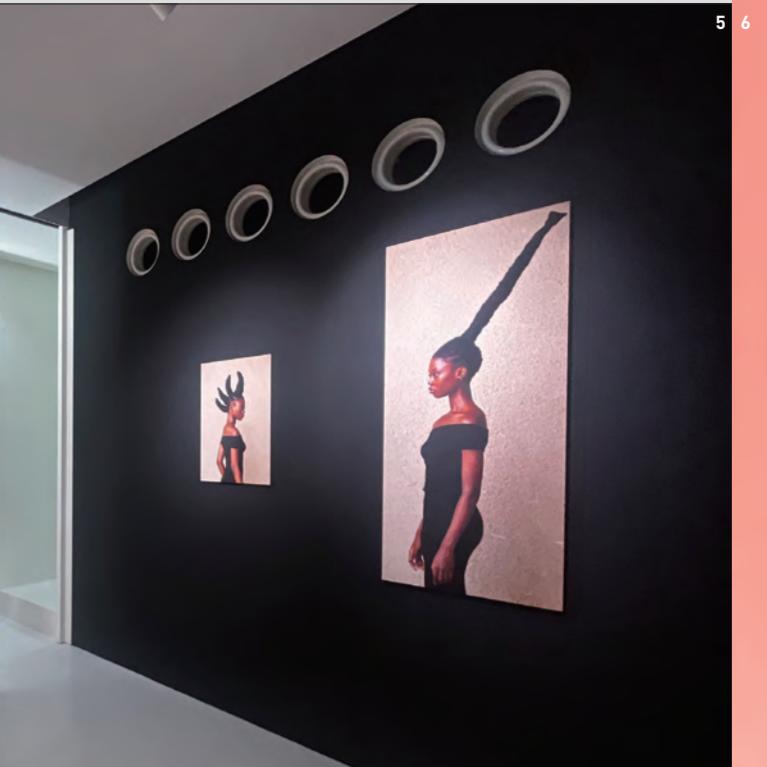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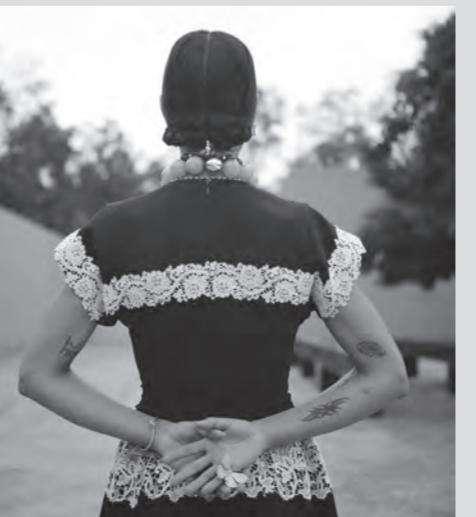
2013년 시작된 이래 매년 꾸준히 인지도를 키워 가며 올봄 13회 행사를 치른 국제적인 사진 축제 교토그라피(KYOTOGRAPHIE)의 첫인상은 '벗꽃이었다'. 4월 초, 마침 교토의 벚꽃 주간이 한창이던 시점이어서 기보다 이번 여성의 개인적 시작이 이 도시로 몰려든 다국적 여객기 들로 인한 하늘길의 교통 체증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속소로 가는 길에 만난 '밤 벚꽃' 덕분

이었다. 마침 밤하늘 아래 살짝 비를 맞아 더 청 신한 느낌이 드는 벚꽃의 자태는 낮의 화사한 분위기와는 또 달랐고, 교토의 운치 있는 팔색 조 면모를 잘 드러내는 듯했다. '봄은 꽃, 어서 보러 오세요, 허가시야마. 색향을 다루는 밤 벚꽃...이라는 노랫말처럼, 심지어 속소도 허가시 야마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밤 벚꽃이 뇌리에 각인될 수밖에. 당연히 프랑스 작가 JR 이 축제의 출발을 알린 교토역을 비롯해 미술관, 사찰, 시장 등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토그라피 전시에도 벚꽃이 함께했다. 특히 하양과 분홍이 상큼한 조화를 이루는 작은 벚꽃 잎들이 실개천에 떠 가는 모습, 일본 사람들이 '꽃배'라 표현하는 시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타임스(TIME'S) 건물의 전시는 때마침 햇살

**'humanity'를 응해
주제로 내세운
교토그라피를
수놓은 작가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스토리텔링이 더
오감을 잡아끌었다"**

의 세레나데가 퍼져 더욱 운치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벚꽃보다는 'humanity'를 응해 주제로 내세운 교토그라피를 수놓은 작가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스토리텔링이 더 오감을 잡아끌었다. 위성 행사인 KG+까지 합하면 3백 명도 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가했지만, 이 글에서는 교토에서 만난 국적, 연령대, 개성이 다른 2명의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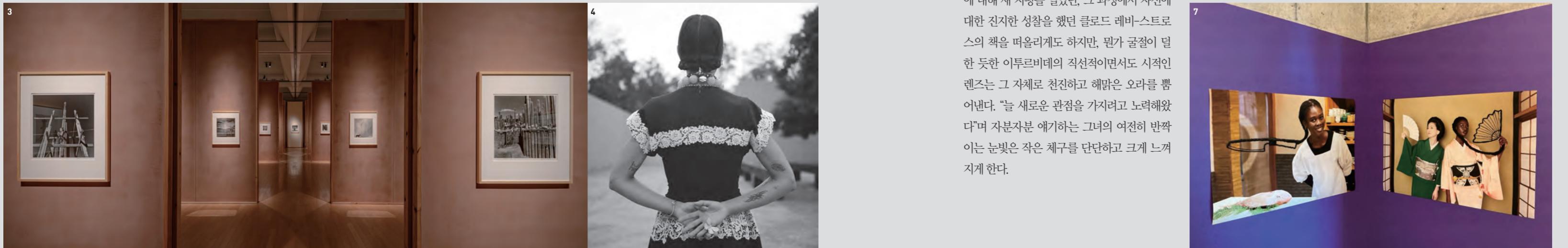
삶을 함축하는 '시각적 증거'들의 힘
교토그라피의 매력을 꼽으라면 전시 공간마다 공들이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콘텐츠와 잘 어우러지는 세련된 무대 미술(scenography)을 1순위에 올릴 것 같다. 그중 교토시미술관 별관에서 열린 80대 멕시코 작가 그라시엘라 이투르비



데(Graciela Iturbide)의 전시는 제일 처음 감탄사를 내뱉게 했다. 중남미 지역 사람들의 다채로운 삶을 카메라로 포착해온 거장의 회고전은 천과 나무 같은 자연 소재의 패널을 활용한 전시 공간 디자인이 우아하면서도 차분한 매력을 십분 발휘했는데, 건축가인 그녀의 아들 마우리시오 로사 이투르비데(Mauricio Rocha Iturbide)가 참여했고 종이 등을 다루는 일본 장인들도 협업에 동참했다. "내게 있어 컬라는 판타지다. 흑과 백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남긴 그녀의 반세기 넘는 창조적 여정을 볼 수 있는 회고전이다. 자신의 뿌리가 얹혀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세리(Seri), 자포텍(Zapotec) 같은 현지 부족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담담하게 자신의 렌즈에 담은 흑백사진들은 특별한 과장이나 윤색 없이 흥미로운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 강렬한 타투가 인상적인 사마에 사는 부족 여인들의 패서너블한 모습, 제3의 성을 지닌 커뮤니티 일원들의 일상, 멕시코의 우상 같은 존재인 예술가 프리다 칼로의 흔적, 그리고 이구아나를 모자처럼 쓴 여인의 초상 등 분명 다른 세계지만 우리네 다양한 모습과 닮은 구석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시간 여행' 같은 전시 여성 속에서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어쩌면 우리는 '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근거 없는 편견이나 그릇된 환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새삼 일깨운다. 인류학자로서 열대우림의 부족 사회를 관찰하면서 미개한 영역으로 간주했던 오지 원주민 사회와 민속 문화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던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했던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책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뭔가 굴절이 덜한 듯한 이투르비데의 직선적이면서도 시적인 렌즈는 그 자체로 천진하고 해맑은 오라를 뿐 어낸다. "늘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해왔다"며 자분자분 얘기하는 그녀의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은 작은 체구를 단단하고 크게 느껴지게 한다.

**1 해마다 일본 교토의 봄을
수놓는 국제적인 사진 축제인
교토그라피(KYOTOGRAPHIE)**
2025는 'humanity'를 주제로
4월 12일 막을 열어 5월 11
일까지 펼쳐졌다. Graciela
Iturbide, Angel Woman,
1979, Sonoran Desert,
Mexico © Graciela Iturbide.
2 디올의 후원으로 진행한
멕시코 작가 그라시엘라
이투르비데가 교토그라피
2025 전시를 찾이 'Our Lady
of the Iguanas'(1979)라는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3 그라시엘라 이투르비데의
전시 모습. Photo by Kenryo
Gu 4 패션지 〈보그〉 멕시코에
실린 디올과의 협업 작품.
© Graciela Iturbide for Dior
– Vogue Mexico 2023
5 코트디부아르의 인플루언서
출신으로 점차 성장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가 돋보이는
20대 신예 레티티아 키
(Laetitia Ky)는 쇼펜하우저
교토그라피 영구 전시장, 그리고
기온 지역의 아스포델에서
각각 전시를 가졌다. 사진은
아스포델 전시 모습.
6 Laetitia Ky, 'Feminist',
2022, Abidjan © Laetitia Ky
7 교토그라피 2025 기간에
델타 교토그라피에 전시된
레티티아 키의 작업.
※ 1, 3, 4, 6 이미지 제공
교토그라피(KYOTOGRAPHIE)
※ 2, 5, 7 Photo by 고성연

아 키는 지난해 교토그라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거치기도 하면서 올해 행사에서 여러 장소에서 각기 다른 개성의 전시를 하는 기회도 가졌다. 데마치 마스가타(Demachi Masugata) 쇼핑 아케이드와 그 안에 자리한 교토그라피의 영구 전시장이자 양중맞은 카페이기도 한 델타 교토그라피에 그녀의 교토 체류기를 카메라에 담은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어느 날 셀럽이 된 신데렐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온갖 도형으로 장식한 듯한 커다랗고 개성 넘치는 헤어스타일과 늘씬한 몸매를 담은 자신의 사진들이 작품 포트폴리오의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의 유명세는 그렇게 찾아오기는 했다.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이자 서아프리카 여성으로서 세상의 편견에 대한 고민이 불거졌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머리를 땋고 놀던 기억을 되살려 다채로운 헤어스타일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유롭게 내보이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인스타그램 스타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운 좋게도 열린 마인드를 지닌 부모님을 두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는 처음엔 열띤 반응을 대개의 젊은이들처럼 즐겼고, 차츰 생각보다 자신의 예술적인 헤어 사진이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길을 과감히 개척하기로 했다. "사실 아이보리공화국에서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이란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헤어를 활용해 여러 다른 주제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죠." 레티티 존 버거는 삶에 대한 시각적 증거로서의 사진을 말하면서 어떤 차원에서 그 삶의 증거는 사회적 발언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증거는 다른 이들이 살아온 삶의 총체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삶에서는 우리 자신도 그저 하나의 광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터자를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의 광경 속에서 주인공도 되고, 친구도 되고, 티없는 관찰자가 되기도 하면서 한데 어우러지는 게 아닐까. 누군가에 오롯이, 경건하게 집중하는 카메라 렌즈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평범한 동작 가운데 때때로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같다. 글 고성연



Magic of Metamorphosis

올해 까르띠에는 다시 한번 마법 같은 위치메이킹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현대의 연금술사처럼 스톤과 금속을 고귀한 오브제로 변모시키는 것은 물론, 위치메이커로서 메종의 시그너처 크리에이션의 풍부한 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스타일 코드를 더욱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것. 까르띠에에 시간은 단순한 측정의 대상이 아닌 무한한 변형과 재창조의 가능성을 품은 예술 그 자체다. 이 훌륭한 위치메이커는 또 한번 찬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탁월한 기술이 어우러진 이번 컬렉션을 통해 진정한 마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 CARTIER ©Valentin Abad



2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다, Tank Louis Cartier

메종의 아이코닉한 위치 중 하나인 탱크. 까르띠에에는 섬세한 스타일적 연구와 정교한 기술력의 발전을 통해 이 디자인 아이콘을 발전시켜왔다. 1917년 탄생 이후 형태와 크기, 소재,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모색해온 것. 이러한 진화를 통해 탱크 상트루, 탱크 쉬누와즈, 탱크 아시메트리크, 탱크 아메리칸, 탱크 프랑세즈, 그리고 최근에 선보인 평전지 솔라비트™ 무브먼트를 장착한 탱크 마스트까지, 많은 형태를 탄생시켰고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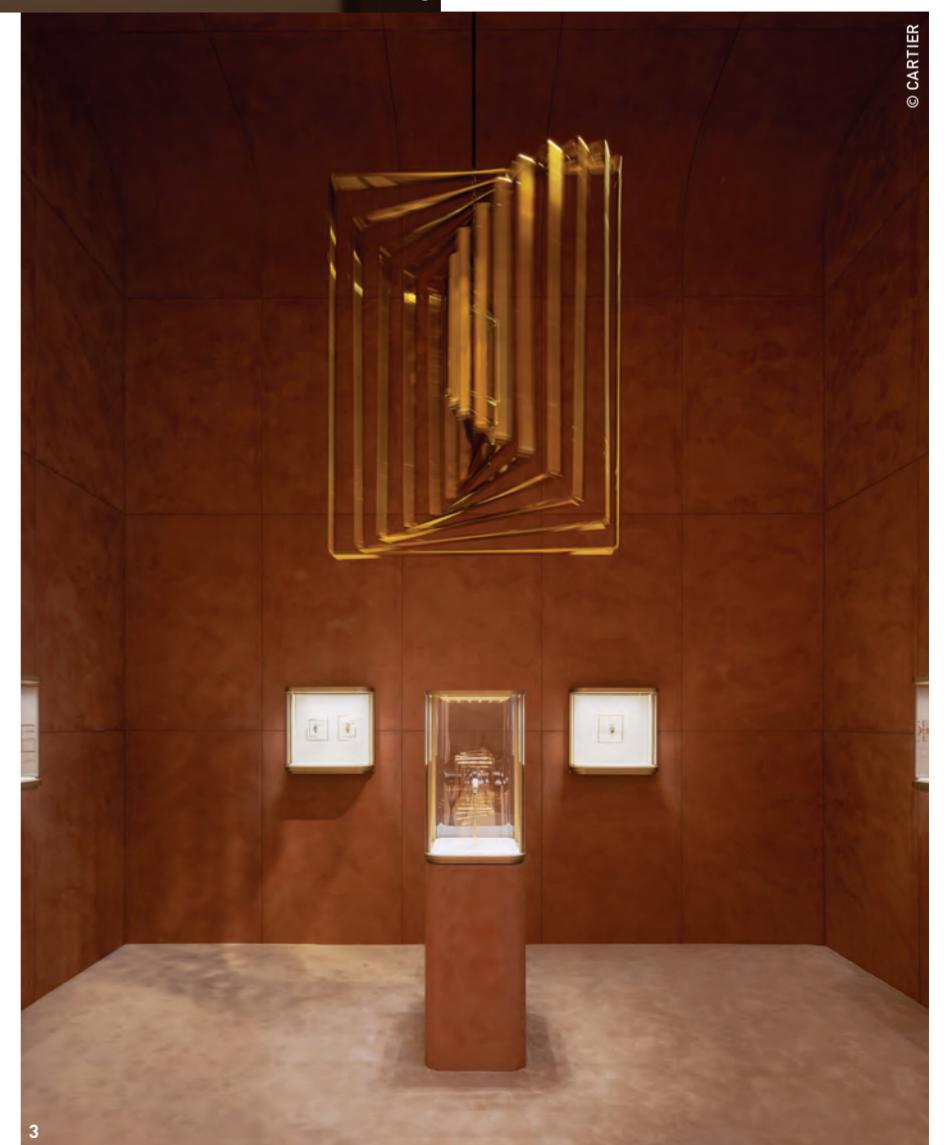
올해 새롭게 탄생한 탱크는 1922년 루이 까르띠에의 오리지널 탱크의 후속작으로 탱크 탄생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재해석된 모델이다. 한층 더 깊어진 케이스에 더 섬세해진 사프트, 부드럽게 다듬은 직사각 형태가 특징이다. 여기에 새로운 오토매틱 와인딩 메커니컬 매뉴팩처 무브먼트 1899MC를 탑재해 더 큰 사이즈로 탈바꿈했다. 탱크만의 세련된 비율과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커진 사이즈로 탱크만의 상징적 특징인 레일 트랙, 로마수자 인덱스, 평행을 이루는 사프트, 블루 스틸 검 모양 핸즈 등의 매력에 더 흠뻑 빠져들게 한다. 소재는 핑크 골드와 엘로 골드로 선보인다.

© CARTIER ©Valentin Abad

시간을 읽는 새로운 방식, Tank à Guichets

까르띠에는 매년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올해의 주인공은 1928년 처음 등장한 타임피스를 재해석해 출시한 탱크 아 기쉐다. 2개의 창으로 시간을 표시하며 점핑 아워와 드래깅 미닛을 활용한 회전 디스크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은 마치 지금의 디지털 시계를 보는 듯한 놀라움을 자아낸다. 시대를 앞선 방식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이 타임피스는 늘 시간을 읽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까르띠에의 철학을 그대로 담았다고 할 수 있다.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윈도를 배치한 오리지널을 그대로 복각한 버전과 10시 방향과 4~5시 방향 사이에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약간의 위트를 더한 버전으로 출시한다. 앞선 버전은 엘로·핑크 골드, 플래티넘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후속 버전은 플래티넘 케이스로만 선보인다. 가로세로 24.8×37.6mm이며 두께는 6mm다. 네 가지 버전 모두 새로운 세대의 탱크 아 기쉐 위치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인하우스 수동 칼리버 9755MC로 구동한다.

1 (왼쪽부터) 버건디 컬러
아리비아누자 및 마닛 트랙과
같은 색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탱크 아
기쉐 위치, 엘로 골드에 그린
컬러 조합 버전, 킹 골드에
다크 그레이 컬러 조합 버전,
플래티넘 소재에 10시 방향과
4시 방향에 윈도를 배치한
버전의 탱크 아 기쉐 위치.
2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에
세미-메트 브라운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하고 실버
마감 스템핑 엘로 버니시
다이얼과 검 모양 블루 스틸
핸즈로 마무리한 탱크 루이
까르띠에 위치. 3 워치스
& 원더스 2025 행사장인
말렉스포 내 까르띠에
탱크의 아이코닉한 스케이
세이프를 담은 회전하는
오브제를 설치했다.



© CARTIER



1 엘로 골드 케이스 및 편
버클에 블랙 래커 다이얼과
샤이니 블랙 카프 스킨
스트랩 및 스마스 블랙
카프 스킨 세컨드 스트랩을
매치한 트레사쥬 위치.
2 (왼쪽부터) 화이트 골드
소재의 케이스 및 편 버클,
다이얼에 블랙 래커를
매치한 트레사쥬 위치.
3 화이트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스파이스타이트 및 블랙 래커를
매치한 펜더 드 까르띠에 위치.
4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세팅하고
에메랄드와 오닉스로 눈과
스폿, 코를 완성한 펜더 주얼리
위치. 5 엘로 골드 소재 펜더의
페이스 부분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블랙
래커와 오닉스로 코와 스폿을
완성한 펜더 주얼리 위치.

© CARTIER © Maud Remy Loniés



독창적인 연금술로 만들어낸, Tressage

이번 워치스 & 원더스에서 선보인 것 중 까르띠에 테마와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워치 컬렉션. 독특한 형태나 다양한 스톤의 변수로 마법 같은 세이프를 이루는 트레사쥬는 마치 연금술을 보는 듯한 황홀함을 선사한다. 이 위치 디자인은 잔느 투상이 남긴 아카이브 피스에서 비롯되었다. 까르띠에 특유의 볼륨감과 섬세한 짜임 디테일을 결합해 워치 컬렉션으로 탄생시킨 것. 따라서 메종의 코드에 충실하면서도 마이옹·꾸상·리플렉션 워치의 유산을 이어간다. 볼륨감 넘치는 2개의 트위스트 줄이 양쪽에서 직사각형 다이얼을 감싸는 형태이며, 가죽 스트랩으로 마무리했지만 전혀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엘로 골드 및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에 샤이니 베이지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엘로 골드에 블랙 래커 다이얼과 샤이니 블랙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풀 파베 세팅하고 네이비 블루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세팅하고 샤이니 네이비 블루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까지, 총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퀴즈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약 30m의 방수 기능까지 더했다.



“
마법은 까르띠에 워치메이킹
비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스톤과 금속을 고귀한
오브제로 변모시키는 장인들의
독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까르띠에는 특별한 시계들을
창조합니다” *by 까르띠에 SA 대표
& CEO 루이 폐를라(Louis Ferla)*

© CARTIER © Lisa Jovanic

© CARTIER © Simone Cavallini



하이브리드 건축 작품, Panthère Jewellery Watch

팬더는 주얼리 메종이기도 한 까르띠에의 크리에이션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컬렉션이다. 이번에도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의 경계를 허물고 까르띠에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팬더 주얼리 위치는 작년에 출시한 리플렉션 드 까르띠에 워치와 비슷한 뱅글 형태를 띈다. 이번에는 팬더의 얼굴과 위치의 페이스, 즉 두 얼굴이 만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늘 그렇듯 팬더는 역동적인 몸짓, 날렵한 선, 귀와 코, 그리고 발바닥까지 정교하게 완성했다. 블랙 래커 다이얼로 완성한 엘로 골드 버전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특히 2백30시간에 걸친 섬세한 주얼리 메이킹과 폴리싱, 세팅 과정을 거친 화이트 골드 버전은 하이주얼리만큼이나 웅장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한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Eternal Attraction

샤넬 하우스를 상징하는 여러 요소의 정점에는 언제나 숫자 5가 존재한다. N°5 향수와 2.55 백으로 유명한 모티브를 이터널 N°5 주얼리 컬렉션으로 만나보자.



“

숫자 5를 모티브로 하는 주얼리 컬렉션은 2021년에 N°5 향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특별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부터 시작되었다.”

1, 7 18K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베이지 골드, 그리고 엘로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2 18K 엘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다이아몬드 라인 네크리스, 엑스트레 드 N°5 링,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N°5의 정신

1920년대 초, 당시 여성들이 사용하던 단순한 꽃향기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모던한 향을 원했던 가브리엘 샤넬 앞에 여러 개의 향수 샘플이 놓인다. 그녀는 그중 다섯 번째 향수 보틀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향수 N°5의 시작이다. 이 향수부터 매년 중요한 컬렉션을 발표하는 5월 5일과 이제는 레전드가 된 2.55 핸드백 까지, 샤넬에 숫자 5는 관능적이고 구조적인 세이프 덕분에 훌륭한 디자인 모티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넘어, 성공과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숫자 5를 모티브로 하는 주얼리 컬렉션은 2021년에 첫선을 보였다. N°5 향수 탄생 100

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특별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었는데, 그중에서도 55.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55.55 네크리스'가 큰 이슈가 되었다. 그 후 이를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였고, 올해는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선보인 '비쥬 드 디아망'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영감받은 제품들을 선보인다. '비쥬 드 디아망'은 샤넬의 첫 번째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별빛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롭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제품으로 가득했다.

가장 작은 형체에 가장 큰 가치를 담을 수 있어 다이아몬드를 선택했다는 샤넬의 말처럼, 작은 반짝임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터널 N°5 컬렉션 역시 매력이 넘친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과하지 않아 데일리 룩에도 안성맞춤이라 올해도 센스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훔칠 예정이다.

2025년 샤넬 N°5 신제품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Ernest Beaus)가 만든 이 전설적인 향수 N°5의 감성을 이터널 N°5 주얼리 컬렉션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의 여러 신제품 중 제일 눈에 띄는 두 가지는 이터널 N°5 다이아몬드 라인에서 출시한 길이 조절 가능한 네크리스와 인비저블 잠금장치로 매력을 더한 브레이슬릿. 가브리엘 샤넬의 러기 넘버 5 모티브 중앙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1932년부터 이어져온 하우스의 시그너처인 클로즈드 세팅(closed setting) 방식으로 장식했다. 네크리스는 5 모티브 끝에 향수 방울을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드롭 방식으로 경쾌한 리듬감을 더했는데,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줄의 반짝임과 골드의 순수함이 대비를 이루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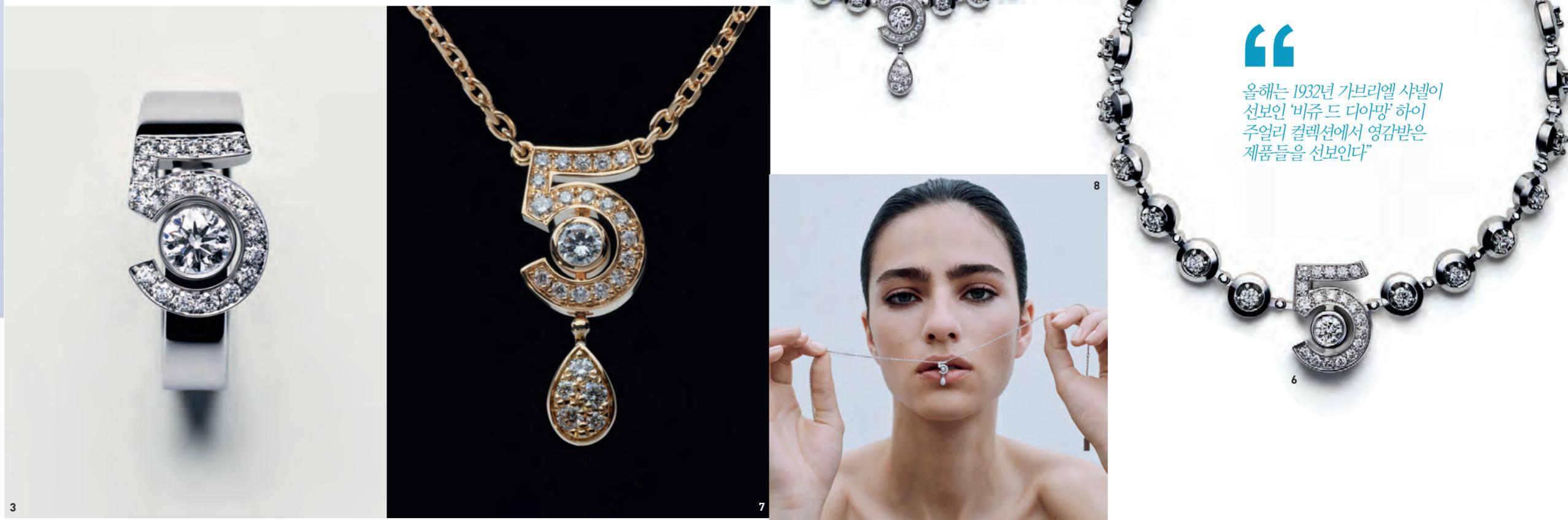
3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링, 올해는 N°5 향수의 황금빛을 연상시키는 18K 엘로 골드로 제작한 브레이슬릿, 링, 싱글 이어링도 함께 선보여 이터널 N°5 라인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4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번형 가능한 이어링.
5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숫자 5의 곡선 중앙에 GIA 인증을 받은 0.3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N°5 향수의 드롭 디테일을 더한 이터널 N°5 다이아몬드 라인 네크리스.



6 이터널 N°5 다이아몬드 라인 브레이슬릿은 18K 화이트 골드, 베이지 골드, 그리고 엘로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8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네크리스.



섬세한 매력을 뽐어낸다. 짧은 초커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어 짧고 경쾌한 스타일링에도 완벽하다. 브레이슬릿은 향수 보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숫자 5의 중앙에 정교하게 잠금장치를 숨겼는데, 2.55 핸드백 잠금장치에서 영감 받아 고안한 디자인으로 샤넬의 독특한 미학을 느끼게 한다. 글 장리윤



“

올해는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선보인 '비쥬 드 디아망'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영감받은 제품들을 선보인다.”



Bold Move

메달 하나만으로 존재감을 발휘하는 펜던트 네크리스. PHOTOGRAPHED BY PARK JAEYOUNG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포렐라토
이코니카 리버시블 네이비스 밀라노 전통과
컨템파리리한 우아함을 담은 디자인으로
18K 로즈 골드에 재미있는 문양을 넣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특한 감성을
전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디올 파인주얼리 로즈 셀렉스트 네크리스
예술에 대한 무슈마울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컬렉션으로 태양과 달을 모티브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
엘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미더오브펄,
오닉스로 달과 별이 돈 밤하늘을 묘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티파니 티파니 라 펜던트 1883년 자물쇠
브로치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으로 18K 엘로
골드 소재에 힐프 파베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프레드 프리티 우먼 힐프티 네크리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힐프 모티브로
완성한 프리티 우먼 컬렉션. 핑크
골드 소재에 미더오브펄 장식 및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완성했다.
가 천2백6만원. 문의 02-514-3721

반클리프 아펠 조디악 아라리우스

롱 네크리스 매종이 사랑하는 포에틱
이스트로노미 테마에 영감받아 1950
년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컬렉션의
펜던트로 물병자리 일기스트를 18K
로즈 골드와 어벤추린 1기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불가리 카보숑 네크리스 카보숑

컷에서 영감받아 단장한 펜던트로
18K 엘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미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전한다.
가 천30만원. 문의 02-6105-2120

피아제 선라이트 펜던트 매종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이자 영감의 원천인 금빛

태양을 닮은 형태로 제작한 18K 로즈

골드에 1백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184개를 스노 세팅한 펜던트 177백

30만원. 문의 1668-1874 에디션 성장만

Heritage of Innovation

2백70년 동안 워치메이킹 기술과 예술의 유산을 정교하게 쌓아온 바쉐론

콘스탄틴. 워치스 & 원더스 2025 부스에서 매종의 프로덕트 & 이노베이션 디렉터, 산드린 동기(Sandrine Donguy)를 만났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미학과 혁신의 본질.



1



2

SC 바쉐론 콘스탄틴은 늘 워치 디자인의 미학적 코드와 혁신을 강조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말하는 '미학적 코드'와 '혁신'이란? 매종이 추구하는 클래식하면서도 절제미가 돋보이는 세련된 미학은 바쉐론 콘스탄틴 정체성의 뿌리와도 같다. 특히 매종의 헤리티지 디자인을 재해석할 때는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며 절제된 스타일에 특별한 감성을 더하려고 한다. 중앙에서 살짝 벗어난 오프센터 카운터나 크라운과 같은 구성 요소가 색다른 매력을 더하는 것. 늘 섬세하고 세련된 매력을 보여주는 것에 나초자 놀랄 때가 있다. 또 우리는 언제나 혁신을 통해 매종의 부礴한 유산을 계승하고자 한다. 혁신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캘린더 기능을 뛰어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천문학적 기능뿐 아니라 미니 리피터, 투르비옹과 같은 하이 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하면서도 예술성과 장인 정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혁신이다. 나 역시 새로운 예술 공예 기법에 대한 탐구를 끊임 없이 지속하고 있다.

SC 한국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입지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나? 바쉐론 콘스탄틴은 한국에서 여성적인 매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스타일은 물론 매우 우아하고 섬세한 여성용 타임피스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따라서 서울에 오픈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워치메이킹 워크숍 세션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예술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고객의 요청으로 8년간 제작한 더 베클리 그랜드 캠플리케이션과 같은 경향이 한국에서 있을 것을 바란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앞으로도 최상의 방식으로 고객의 기대와 흐름에 맞춰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 이롭게 2백70년 동안 이어져온 바쉐론 콘스탄틴의 퀘스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의 1877-4306 에디션 성장만



3

SC 신제품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2162 QP/270을 탑재한 트래디셔널 투르비옹 퍼페추얼 캘린더다. 하지만 이러한 하이 캠플리케이션은 다른 워치 매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매종의 투르비옹 베이스 칼리버 2160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베이스 칼리버 위에 모듈을 얹었을 때 시계가 두꺼워 보이지 않도록 모듈을 통합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르비옹이 필요하지만 레트로그레이드 이드 라이드도 필요하고 그 위에 투르비옹과 퍼페추얼 캘린더까지 조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매종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 명확한 비전 아래 설계가 이뤄진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시계를 제작한다. 멀리 내다보는 것. 헤리티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먼 미래를 내다보며 처음부터 기술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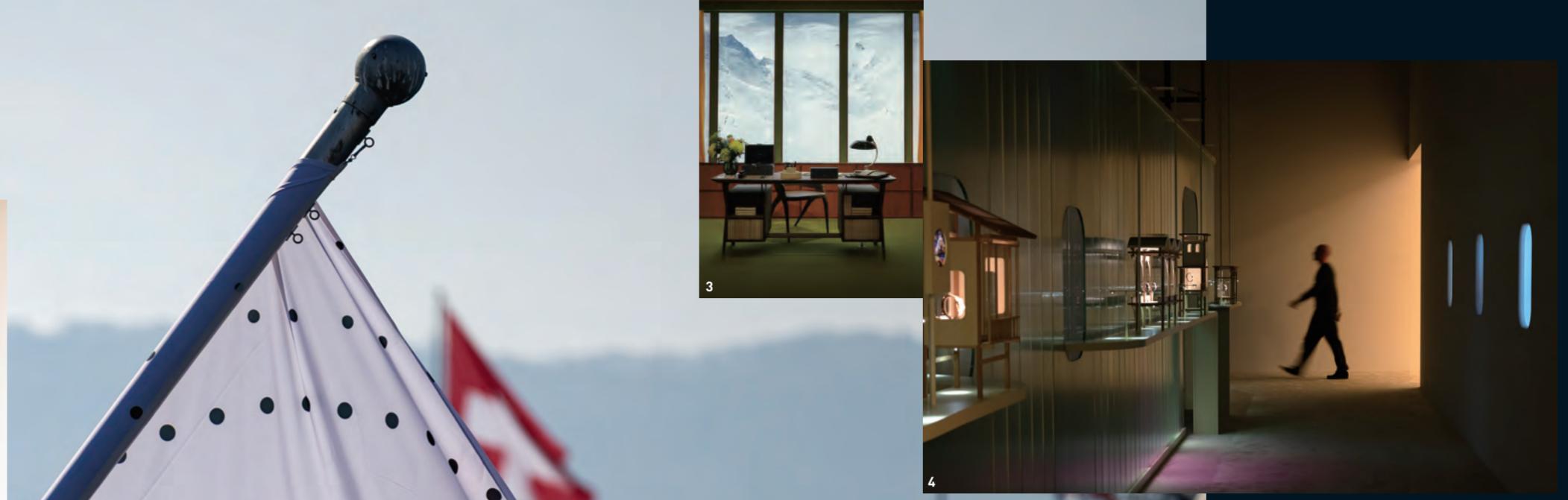


4



Watches & Wonders 2025

더 이상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박람회가 아니다. 오늘날의 워치스 & 원더스는 시계를 사랑하는 전 세계 애호가와 워치메이킹의 도시, 제네바가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축제로 진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워치 메종은 브랜드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럭셔리의 고유한 위상과 대중적 접근성의 균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긴장감 속에서 변함없이 찬란한 시간을 기록해나가는 현장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찾았다.



여기서 또 하나의 워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 바로 여성의 얇은 손목 사이즈에 맞춰 다운사이즈된 워치 혹은 주얼 워치의 확장이다. 에르메스는 대표 채인 모티브를 활용한 '마이옹 리브르'를 공개했으며, 여성 고객층을 겨냥한 펜던트형 워치와 브레이슬릿 워치로 선보였다. 반클리프 아펠은 주얼 워치 '까테나'를 다시 선보였고, 불가리는 뱅글 실루엣의 '서르판티', 까르띠에는 '트레사쥬' 워치 등으로 그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렇듯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는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고객층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워치 브랜드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으며, 단지 시계를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 시대 정신에 응답하는 메종들의 섬세한 전략이 돋보였다.

럭셔리, 하이엔드 워치 경험의 장, 팔렉스포

올해 팔렉스포 전시장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했다. 워치스 & 원더스가 매년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듯, 각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감각적 체험과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몰입형 공간을 시도했다. 특히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들의 방문이 더해져 행사장 곳곳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올해도 한국 셀러브리티의 존재감은 단연 눈에 띄었다. 피아제는 글로벌 앰배서더로 배우 전지현을 초청해 그녀의 우아한 카리스마와 '식스티' 워치의 섬세한 조화를 선보였다. 예거 르쿨트르는 배우 김우빈을 통해 '리베르소' 워치의 절제된 우아함과 남성적인 미학을 드러냈다. 한스 짐머와 하비에르 바르뎀은 오는 6월 개봉 예정인 영화 <F1®>의 음악감독과 주연 배우로서 공식 파트너이자 워치 앤지니어로 험입한 IWC 부스를 방문하며 열기를 더했다. F1® 열기에 불길을 더한 브랜드가 하나 더 있었다. 약 30년 만에 F1® 공식 타임키퍼로 화려하게 복귀한 태그호이어가 그 주인공이다. 부스 위치를 옮겨 더 확장했으며, 전설적인 드라이버들의 레이싱 키를 전시해 모터 레이싱의 DNA를 강렬하게 부각했다. 전통과 혁신이 맞닿는 부스 연출도 한층 더 정교해졌다. 몽블랑은 알프스 산脉을 재현한 부스를 통해 장인의 정신을 체험형 공간으로 구현했고,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의 탄생 배경인 1931년 폴로 클럽을 테마로 한 전시 공간을 통해 메종의 역사적 순간을 극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에르메스는 올해의 테마 'Le Temps Suspendu(멈춰진 시간)'를 시네마틱하게 구현하기 위해 비주얼 아티스트 사라-아나이스 데르노이(Sarah-Anais Desbenoit)와 협업해 브랜드 고유의 상상력을 가득 담은 공간을 완성했다. 이처럼 2025년의 팔렉스포는 각 브랜드가 품은 철학과 감성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무대였으며, 보는 이들에게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정제된 시간의 경험을 선사했다. 에디터 성정민(제네바 현지 취재)



“
올해 팔렉스포 전시장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했다. 이는 워치스 & 원더스가 매년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작년보다 한 주 앞당겨진 4월 1일, 올해도 어김없이 지상 최대의 워치 박람회, 워치스 & 원더스가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매년 규모와 영향력을 키우기는 이 행사는 이번에도 역대급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총 5만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오랫동안 행사장 밖에서 독자적인 신제품 발표를 이어온다 불가리가 드디어 공식 브랜드로 합류했다는 점이다. 불가리 같은 빅 주얼리 & 워치 메종이 합류하면서 워치스 & 원더스는 한층 더 풍성해졌고, 더욱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에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메종들이 꺼내 든 해답은 '화려함'이었다. 비비드한 컬러 팔레트와 주얼리적 요소를 가미한 시계가 대거 등장하며, 그 어느 해보다 감각적이고 대담한 미학을 선보였다. 키 컬러는 '블루'. 사낼은 메종 최초로 선보인 블루 세라믹 소재의 J12를 통해 깊이 있는 매트 텍스처를 선보였고, 제니스, 위블로, 투더, 롤레스 역시 자신들만의 색채 해석을 통해 다양한 블루 컬렉션을 공개했다. 여기에 레드와 베건 디도 트렌드 컬러로 부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에르

메스와 투더는 절제된 베건디 컬러로, 위블로는 브랜드 특유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레드 세라믹 소재의 빅뱅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기념비적 해를 맞이한 브랜드도 여럿 있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창립 270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번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랜드 컵플리케이션 워치를 공개했고, 제니스는 창립 160주년 기념 워치로 브랜드 창립자 조르주 파브르-자코의 이나설을 딴 신작 'G.F.J'를 선보였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로저드뷔는 워치메이킹 기술을 한데 집약한 엑스칼리버 그랜드 컵플리케이션 워치로 이

를 기념했다. 위블로 역시 빅뱅 탄생 20주년을 맞아 오리지널 빅뱅과 현재의 빅뱅 유니코를 결합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이처럼 특별한 해를 맞이한 브랜드가 많아서인지, 과거의 시계를 다시 꺼내 재해석하거나, 디자인적 DNA를 바탕으로 새로운 라인을 구성하는 움직임은 올해 워치 인더스트리 전반에 널리 퍼졌다. 피아제의 '식스티(Sixtie)' 역시 과거 여성 네크리스 워치의 실루엣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모델이다.



시간을 초월한 융합의 미학

2005년, 하나의 혁신이 시계를 재정의했다. 위블로 빅뱅은 전통과 미래,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순한 위치를 넘어 '아이콘'이 되었다. 그 시작으로부터 20년, 위블로는 헤리티지와 진화를 하나로 아우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또 한번 시간의 패러다임을 혼든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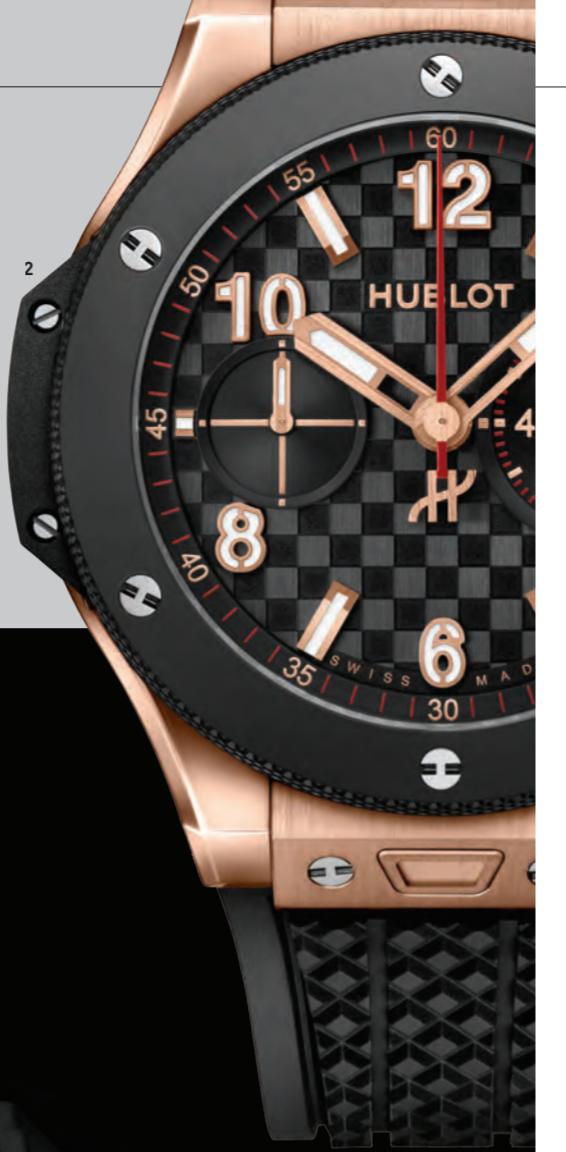
위블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치 컬렉션, 빅뱅이 탄생 20주년을 맞이했다. 2005년 마케팅 전재라 불리던 장-클로드 비버(Jean-Claude Biver)가 CEO로 부임하며 선보인 첫 컬렉션으로 이제 위블로의 아이코닉이 되었다. 위블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과거의 헤리티지와 현재를 결합한 특별한 위치 컬렉션을 선보인다. 오리지널 빅뱅의 디자인과 현재의 빅뱅 유니코를 결합한 다섯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이 그 주인공이다. 물론 '아트 오브 퓨전(Art of Fusion)'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소재의 연금술사라는 별칭답게 소재에 대한 배리에이션을 잊지 않았다. 다섯 가지 모델은 모두 초기 빅뱅을 연상시키는 장주 패턴의 구조적인 러버 스트랩은 빅뱅 유니코의 원 클릭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적용해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다. 카본 패턴 디

해 빅뱅 특유의 실루엣을 보여준다. 카본 패턴은 연상시키는 양각 패턴을 더한 디자인에는 아이코닉한 리벳 아라비아숫자와 인텍스가 자리하며, 오리지널 빅뱅과 동일한 디자인에 빅뱅 유니코의 슈퍼-루미노바®를 더했다. 또 디자인에는 2개의 카운터를 배치하고,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 3시 방향에는 크로노그래프 분카운터를 배치했다. 유니코 오토매틱 매뉴팩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골드 로터로 특별함을 더했다. 초기 오리지널 빅뱅을 연상시키는 디아몬드 형태가 반복되는 기하학적 디자인의 '트레드'로 장주 패턴의 구조적인 러버 스트랩은 빅뱅 유니코의 원 클릭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적용해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다. 카본 패턴 디

1 지름 43mm 마이크로
블리스트 폴리시드 블랙
세라믹 소재로 완성한 빅뱅
20주년 기념 올 블랙.
2 위블로만의 18K 킹 골드
케이스로 완성한 지름
43mm의 빅뱅 20주년
기념 킹 골드 세라믹.

모든 것의 시작, 오리지널 퓨전으로의 회귀
티타늄 세라믹 & 킹골드 세라믹

먼저 위블로는 빅뱅 컬렉션의 최초 디자인과 소재에 주목했다. 빅뱅 20주년 기념 에디션은 티타늄 세라믹 5백 피스, 킹 골드 세라믹 2백50피스 리미티드로 선보이며, 모든 디테일을 더욱 세밀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케이스는 지름 43mm로 새롭게 단장하고 곡선형으로 디자인한 편치드 러그가 특징이다. 폴리싱 처리한 베젤에는 초기 빅뱅 모델에서 돋보인 톱니 모양의 베젤 에지를 적용했다. 첫 번째 빅뱅 모델에 사용했던 러버 텁이 달린 직사각형 푸시와 로장주 패드가 있는 디아몬드 패턴 러버 스트랩 역시 재현했는데, 이번에는 원 클릭 시스템 덕분에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카본 패턴 디



3

3 폴리시드 매직 골드 케이스의
빅뱅 20주년 기념 풀 매직 골드.
4 폴리시드 새틴 마감 티타늄
소재 케이스를 적용한
빅뱅 20주년 기념 티타늄
세라믹. 양각 패턴 디아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5 빅뱅 20주년 기념
티타늄 세라믹.
6 위블로만의 소재에 대한
노하우로 완성한 레드 컬러
세라믹 소재가 돋보이는 빅뱅
20주년 기념 레드 매직.

강렬한 컬러, 레드 세라믹

세라믹은 빅뱅의 탄생과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빅뱅의 탄생을 시작으로 쌓아온 컬러 세라믹에 대한 위블로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독보적이다.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전례 없는 선명한 색상의 세라믹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매년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컬러 세라믹은 다루기 매우 어려운 소재로 적절한 색소를 선택하고 재료의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며 색상이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알맞은 압력과 온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위블로가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컬러 세라믹은 2018년 공개된 레드 세라믹이다. 위블로는 브랜드를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해준 이 첫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빅뱅 20주년 기념 레드 매직 에디션을 다섯 번째 모델로 완성했다. 선명한 레드 세라믹과 카본 패턴 디아일의 조합은 대담하고 독창적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1백 피스 한정으로 제공된다.

보이지 않는 가시성, 올 블랙

올 블랙 세라믹은 흔한 듯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위치 브랜드마다 고유의 색으로 구현하기 위해 그 어떤 컬러풀한 위치보다 더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올 블랙이다. 컨템퍼러리 위치 디자인에서 위블로의 올 블랙은 혁신적인 개념으로 디자인의 게임 체인저로 손꼽힌다. 2006년 첫 번째 빅뱅 올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 공개된 이 대담하고 전례 없는 콘셉트는 럭셔리 타임피스에서 우리가 기대해온 기능성이나 가독성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가시성'이라는 대담한 개념을 제시했다. 색상과 빛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가장 미세한 디테일까지 특별하게 강조되며 은밀하고 매혹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빅뱅의 20주년 에디션에 올 블랙이 빠질 수 없는 이유다. 매트 및 폴리시드 블



4

혁신이라는 이름, 매직 골드

소재의 연금술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한 위블로의 가장 특별한 소재, 매직 골드 역시 20주년 기념 에디션에서 빼놓을 수 없다. 위블로는 스코프에서 약한 18K 골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세계 최초로 매직 골드를 탄생시켰다. 전통적인 소재와 금속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위블로의 연구 개발 부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나타낸다. 그것은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존 소재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 매직 골드는 세라믹의 내구성과 골드의 광택을 결합해 미세한 녹색이 감도는 황금빛을 띠며 스크래치와 산화에 강한 독특한 소재다. 위블로 매뉴팩처에서 개발하고 자체 주조소에서 생산하며, 이 역시 빅뱅 20주년 기념 에디션에 적용해 1백 피스 한정으로 출시한다. 독특한 18K 골드 합금과 카본 패턴 디아일, 골드 색상 핸즈와 마커를 결합해 톤과 텍스처 면에서 완벽하게 미래 지향적인 조화를 완성했다.

5

6



가장 순수한 블루, 워터 블루 사파이어 빅뱅 유니코

사파이어 소재를 잘 다루기로 유명한 위블로는 이번에도 사파이어 위치 컬렉션을 빼놓지 않고 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빅뱅 유니코 워터 블루 사파이어는 위블로만이 재현할 수 있는 투명성을 자인 워터 블루 컬러로 또 한번 놀라움을 자아냈다. 열대의 맑고 투명한 물과도 같은 느낌을 주며 44mm 크기의 큰 케이스와 반투명 블루 러버 스트랩, 오픈 다이얼의 인덱스 및 핸드에 블루 포인트를 더해 완벽한 조화를 선사한다. 빅뱅 유니코 워터 블루 사파이어는 첫 번째 인하우스 매뉴팩처 오토매틱 칼리버인 유니코로 구동하고, 현대적인 구조로 설계된 오토매틱 인터그레이티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3백54개의 부품으로 간소화되어 내구성을 확보했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50피스 한정으로 출시된다.

독보적인 존재감, 빅뱅 20주년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다루기 힘든 소재로 유명한 사파이어를 가공하는 데 특별한 노하우를 지닌 위블로는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라고도 불린다. 2016년 처음 사파이어 빅뱅을 선보인 후 이듬해 컬러 사파이어 케이스를 공개하며 위블로는 사파이어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런 이 유로 빅뱅 20주년 기념 에디션에 빠질 수 없는 소재임이 틀림없다.

단 5세트 한정 제작된 빅뱅 20주년 기념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세트는 각각 다른 사파이어 또는 샐 케이스의 빅뱅 MECA-10 모델 5점으로 구성된다. 투명 사파이어부터 워터 블루, 딥 블루, 퍼플, 그리고 네온 엘로 샵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컬러는 위블로 사파이어만의 투명함을 잘 표현했으며, 오로지 5점 1세트로만 구입 가능하다.

1 빅뱅 20주년 기념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세트 중 폴리시드 네온 엘로 샐 컬러 버전.

2 빅뱅 20주년 기념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세트 중 폴리시드 퍼플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로 완성한 피스.

3 빅뱅 20주년 기념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세트 중 폴리시드 딥 블루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로 완성한 피스.

4 지름 44mm의 폴리시드 워터 블루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로 완성한 빅뱅 유니코 워터 블루 사파이어.

색채로 만개하다, 페트를 블루와 민트 그린 세라믹으로 선보이는 빅뱅 유니코, 빅뱅 원 클릭 33MM 페어

선명하고 독특한 색상의 세라믹을 만드는 기술력 역시 위블로만의 특기다. 이번 빅뱅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두 가지 새로운 색상의 세라믹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깊고 따뜻하며 은은한 녹색이 감도는 페트를 블루 세라미크와 시원한 파스텔 색조의 민트 그린 세라믹으로 완성한 빅뱅 유니코와 빅뱅 원 클릭 페어가 바로 그것. 빅뱅 유니코는 지름 42mm 사이즈로 제공되며 빅뱅 원 클릭 33MM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베젤로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부여했다. 두 가지 모델과 컬러 모두 통일감을 주는 페트를 블루와 민트 그린 턴 러버 스트랩과 매치했으며, 위블로만의 원 클릭 시스템으로 스트랩을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 모두 한정된 시즌 동안만 제공된다.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향연, 빅뱅 원 클릭 조이풀 33MM

위블로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위치를 원하는 남성을 위한 33mm 원 클릭 모델에서 5개의 새로운 레퍼런스를 공개하며 2000년대 초 빅뱅 모델에 사용된 화려한 컬러를 재현한다. 주얼리와 위치를 함께 선보이는 메종에서만 볼 수 있던 컬러 젠스톤을 위치에 적용한 점도 흥미롭다. 덕분에 컬러 러버뿐 아니라 케이스까지 완벽한 컬러풀함을 선사한다. 빅뱅 원 클릭 조이풀 컬렉션은 총 다섯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드 스피넬, 오렌지 사파이어, 핑크 사파이어, 블루 토파즈, 그린 차보라이트로 베젤을 완성하고 각 컬러와 색을 맞춘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전부 광택이 있는 화이트 다이얼을 채택했으며, 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로 최적의 작동을 보장한다.

혁신의 심장, 위블로 매뉴팩처

위블로의 혁신적인 소재와 위치 개발은 제네바와 로잔 사이 라코트(Lacôte) 지역에 위치한 위블로 매뉴팩처에서 이뤄진다. 기존에 있던 총 6,000m²(약 1천4백15평) 규모의 6층 건물에는 기계 가공, 조립 및 컴플리케이션 공방, 그리고 행정과 연구 개발 부서 등을 두고 있으며 다리 하나를 건너 바로 옆에 새로운 매뉴팩처 건물이 탄생할 예정이다. 이는 8,000m²(약 2천4

20평) 규모로, 전체 부지 면적은 총 14,000m²(약 4천2백30평)에 달한다. 이 신축 건물에서는 매뉴팩처 무브먼트의 부품 생산 및 위치 케이스 제조가 이루어지며, 보석 세팅, 장식, 전기도금 및 표면 마감 부서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 행정 부서, A/S 센터, 직원 식당도 이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건물에는 경영진 사무실,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부서, 무브먼트 조립, 케이싱, 핸즈 및 브레이슬릿 장착, 컴플리케이션 워크숍, 품질관리 및 연구 개발 부서 등이 자리한다. 위블로는 세라믹 컬러의 조합부터 소재 및 무브먼트의 개발, 커팅 및 조립 등 모든 공정을 이 매뉴팩처에서 직접





Watches & Wonders | CHANEL WATCHES

매혹의 컬러, 블루

2000년에는 블랙 애디션, 2003년에는 화이트 애디션을 선보였던 J12가 올해 선택한 컬러는 블루. J12 출시 25주년을 맞아 블루 매트 세라믹 컬러를 선보인다.

블랙에 가까우면서 블루에서도 멀지 않은 오묘한 컬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샤넬의 새로운 블루

블랙 & 화이트의 대명사였던 J12와 블루 컬러가 이렇게 환상의 팀워크를 이룰 줄 누가 알았을까. 그동안 블루 컬러는 1932년 탄생한 첫 하이 주얼리 컬렉션 '비쥬 드 다이아몬드'를 시작으로 샤넬 패션, 뷰티에서만 선보여왔다. "샤넬의 세라믹은 샤넬 워치메이킹이 일구어낸 예술적인 소재입니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세라믹을 귀금속처럼 다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들 덕분에 세라믹은 다양한 창조적 기능성을 펼칠 수 있고, 무한한 영감을 주는 소재로 거듭났습니다." 샤넬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아르노 샤르탱(Arnaud Chastaingt)의 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블루 컬러 중 블랙에 은은한 블루 한방을 떨어뜨린 블루빛을 구현하고 싶어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J12만을 위한 특별한 블루. 빛의 각도에 따라 새로운 느낌을 주는 이 블루는 J12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기술력, 그리고 정교함과 조화를 이루며 올해 총 아홉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J12 블루 38MM 사파이어

베젤과 인디케이터에 총 58개의 천연 바게트 컷 사파이어를 세팅해 세라믹의 매트 피니시와 사파이어의 우아한 조화가 빛을 발한다. 수많은 보석 세팅 기술을 마스터한 워치메이킹 공방에서 천연 사파이어를 세팅해 샤넬의 뛰어난 보석 매칭 및 세팅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오트 오를로제리 모델에만 적용하는 COSC의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블랙 피니시 칼리버 12.1을 탑재했다. 1백 개 리미티드 애디션.

J12 블루 칼리버 12.1 38MM와

J12 블루 칼리버 12.2 33MM 워치 세라믹 바게트 모티브 디테일이 신의 한 수. 인디케이터에 세팅한 바게트 컷 사파이어의 밝은 블루가 블루 세라믹과 만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38mm 워치 모델에는 칼리버 12.1을, 33mm에는 칼리버 12.2를 장착했는데, 둘 다 샤넬이 공동 소유한 스위스 캐나시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블랙 코팅을 적용한 무브먼트다. 역시 리미티드 애디션이다.



2



“

샤넬의 세라믹은 샤넬 워치메이킹이 일구어낸 예술적인 소재입니다. 다양한 창조적 기능성을 펼칠 수 있고, 무한한 영감을 주는 소재로 거듭났습니다”

*by 샤넬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아르노 샤르탱*

1



J12 블루 X-RAY

깊고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투명한 블루가 특징. 1피스를 제작하는 데 무려 1천6백 시간이 소요된다. 큰 합성 사파이어 블록으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조각한 것이 인상적. 화이트 골드 베젤과 링크에 천연 사파이어를 1백96개 세팅했는데, 화이트 골드에 블랙 코팅 처리해 블루 컬러와 대비되도록 했다. 칼리버 3.1의 중심에 자리한 플레이트를 받치는 2개의 브리지는 무색 사파이어를 사용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쟈각을 불러일으킨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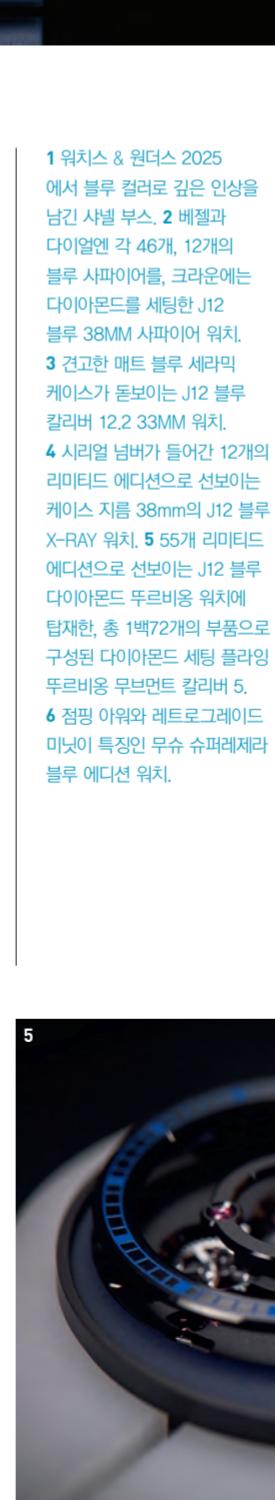


모델에는 1백96개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를 세팅했는데, 이 2개의 케이스에 보석을 세팅하는 데만 1백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무슈 슈퍼제라 블루 애디션

샤넬 남성 워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무슈드 샤넬 슈퍼제라의 세련된 스포츠 스타일을 블루 컬러로 새롭게 해석했다.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계 디자인에서 영감받아 인스턴트 점핑 아워와 240도 레트로그레이드 미닛을 갖춘 컴플리케이션이 특징. 모터 스포츠의 전설적인 순간을 시계로 포착한 디자인으로 샤넬에서 디자인부터 개발 및 조립까지 전 과정을 진행한 칼리버 1을 장착했다. 견고한 매트 블루 세라믹과 스텀 소재를 매치한 케이스와 베젤, 블랙 기요 세 디아얼, 송아지가죽 라이닝 및 트리밍을 넣은 나일론 스트랩이 에너제틱하다. 1백 개 리미티드 애디션으로 출시한다. 문의 080-805-9628 글장라운

3



J12 블루 다이아몬드 투르비옹

샤넬 오투 오를로제리의 정수를 담은 모델. 플라잉 투르비옹 케이지 중앙에 세팅한 65면 솔리태어 다이아몬드가 단면에 시선을 사로잡는데, 덕분에 살짝 어두울 수 있는 블루 다이얼이 환하게 느껴진다. 베젤에 세팅한 34개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도 특징.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측면을 8시간 동안 수작업 폴리싱했으며 매뉴팩처에서 3년에 걸쳐 개발한 칼리버 5를 탑재했다. 파워 리저브는 최대 42시간, 케이스 지름은 38mm다.

J12 블루 42MM 사파이어와

J12 블루 28MM 사파이어

블랙같이 절은 블루 세라믹과 스텀을 블랙 코팅 한 라인이 미묘하게 대비를 이루며 독특한 미학을 완성했다. 케이스 지름 42mm와 28mm 두으로 선보여 커플 워치로도 손색없다. 42mm 모델에는 1백70개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를, 28mm



6



7

손끝에서 피어난 유산, 다미아니의 시간

무려 1백여 년간 이탈리아 주얼러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다미아니.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 마르게리타·미모사·벨에포크 컬렉션의 새로운 주얼리들을
선보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글로벌 스토어 콘셉트를 선보이며 그들의 소중한 유산을 이어간다.



“

다미아니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우리는
솔직하고 강인하며
자유롭고 자기인식이
뚜렷한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
by 다미아니 CEO
제롬 파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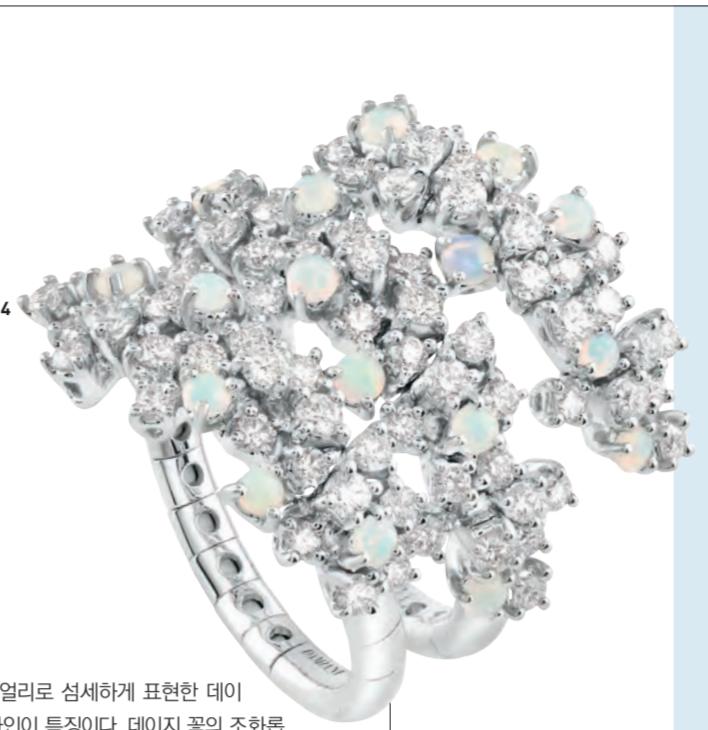
이탈리아 대표 주얼러 다미아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주얼리 메종이다. 창립자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Enrico Grassi Damiani),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다미아노(Damiano)와 그의 아내 가브리엘라(Gabriella)를 거쳐 세 자녀 귀도(Guido), 살비아(Silvia), 조르지오(Giorgio)까지. 다미아니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숙련된 장인들의 손길, 스톤에 대한 노하우는 이렇듯 뿌리 깊은 유산이 이어져왔기에 가능했다. 올해 다미아니는 새로운 콘셉트 스토어와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코닉의 귀환

메종 다미아니는 세 가지 대표 주얼리 컬렉션을 갖추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성, 사보이의 마르게리타(Margherita of Savoy)에게서 영감받은 마르게리타 컬렉션부터 창립자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의 아들인 다미아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 아내 가브리엘라와 딸 실비아의 강인함과 끈기에 경의를 표하고자 탄생시킨 미모사 컬렉션,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가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시작된 황금기 '벨 에포크' 시대에 영감받아 탄생시킨 벨 에포크 컬렉션이 그것이다. 각각의 컬렉션은 그들의 개성과 색으로 아이코닉한 주얼리로서 자리매김했다. 먼저 마르게리타 컬



1



2

3

4

5

INTERVIEW with Jérôme Favier(CEO)

2018년 초 다미아니의 CEO로 합류한 제롬 파비에(Jérôme Favier)는 다미아니, 살비나(Salvini), 블리스(Bliss), 베니니(Venini), 칼데로니(Calderoni), 로카(Rocca) 브랜드를 보유한 이탈리아-럭셔리 그룹을 이끌고 있다. 주얼리 및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업계에서 20년 이상의 커리어를 쌓은 전문가답게 현대적인 경영 스타일로 다미아니 그룹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프로페셔널하고 유쾌한 웃음으로 애디터를 반갑게 맞아준 그를 만났다.

스타일 조선일보(이하 SC) 이탈리아 대표 주얼러로서 다미아니는 다른 주얼리 메종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다. 대형 럭셔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점일 것이다. 다미아니는 현재까지도 창립자 가족의 3세대가 이끄는 가족 기업이다. 따라 서 다미아니는 단순히 브랜드명이 아닌 장인 정신과 품질을 보증하는 가족의 이름이다. 또 그 이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미아니의 신념이 담겨 있다. 그 때문에 1백 년이 넘는 역사와 가치를 바탕으로 정체성과 전통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었다.

- 1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모사 워치.
- 2 다미아니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보인 미모사 워치.
- 3 디아얼과 새틴 스트랩에 컬러를 더해 더욱 매혹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미모사 워치 컬렉션.
- 4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무지갯빛 영롱한 광채를 지닌 화이트 카보숑 컷 오페랄을 조합한 새로운 버전의 2025년 미모사 컬렉션 링.
- 5 다미아니 CEO 제롬 파비에

SC 늘 제네바에서 워치스 & 원더스 행사 기간에 다미아니 주얼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다미아니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제네바 워치스 & 원더스 기간 중 열리는 오트 주얼(Haute Jewels) 전시는 세계 주얼리 브랜드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 전 세계 주요 파트너와 미디어가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컬렉션과 추후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럭셔리 주얼리 및 워치 리테일 체인, 로카는 다미아니 그룹에 속해 있다. 이 워치 박람회를 통해 로카는 주요 워치 브랜드 및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고 각 브랜드의 신제품을 가장 먼저 접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로카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다. 스위스 독립 워치 브랜드 H. 모자엔씨(H. Moser & Cie.)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규모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H. 모자엔씨는 한국에 첫 번째 부티크를 오픈할 예정이다.

SC 메종마다 각자 추구하는 이미지나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미아니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다미아니 고객들은 저마다 디자인을 면모와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컬렉션을 착용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원할 때는 미모사 컬렉션을,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벨 에포크 컬렉션을 착용한다. 옷차림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고 싶다면 벨 에포크 컬렉션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할 때는 마르게리타 컬렉션을 선택한다. 즉 다미아니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솔직하고 강아지와 자유롭고 자기 인식이 뚜렷한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

SC 다미아니를 방문했을 때 같은 크기와 양의 스톤이 쓰이고 동일한 가격임에도 훨씬 불亂감 있고 화려해 보이는 점이 신기했다. 이 역시 다미아니가 가족 기업이라 가능한 것일까? 물론이다. 다미아니의 모든 주얼리는 하이 주얼리부터 파인 주얼리까지 숙련된 장인들의 손길로 제작된다. 또 모든 제작 공정이 인하우스로 이뤄지며 디자인부터 소재 수급까지 모든 과정을 조르지오 다미아니가 직접 관리하고 승인한다. 그는 세계 각지의 저명한 원석 공급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이는 다미아니의 가장 큰 강점이자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다.



SC 새로운 콘셉트의 부티크를 오픈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우리의 새로운 부티크는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가정집의 세련된 분위기에서 영감받아 밝고 편안한 환경에서 예종이 선보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때문에 우리 부티크에는 이탈리아 디자인과 예술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을 배치했으며, 매장 내부에는 오직 최상의 이탈리아산 자재만 사용했다. 또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도 세심한 정성과주의를 기울였다. 따뜻한 컬러 팔레트와 골드 컬러, 더불어 베이지와 브라운의 터치로 메종 특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SC 이탈리아 주얼러 다미아니가 느끼는 한국 시장의 매력은 무엇일까? 한국 고객들은 세련된 취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문화와 스타일, 장인 정신에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이는 다미아니 브랜드와 주얼리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다미아니와 한국은 서로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날 예정이다. 앞으로 다미아니가 한국에서 선보일 새로운 여성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한다. 애디터 성정민(제네바 현지 취재)



사랑이란 이름의 위치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늘 그랬듯,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도 시간을 사랑과 예술로 해석한 시계를 선보이며 관객을 매혹시켰다. 두 가문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 이 메종은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장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풀어낸다. 이번에도 역시 기술적 정교함과 예술적 비전이 만나며, 하나의 위치를 뛰어넘는, 이야기로 완성된 오브제가 탄생했다.

사랑의 이야기로 탄생한 메종과 포에틱 컵플리케이션 컬렉션

1895년 알프레드 반 클리프(Alfred Van Cleef)와 에스텔 아펠(Estelle Arpels)의 결혼으로 시작되고 1906년 파리 방돔 광장 22번지에 자리 잡은 반클리프 아펠은 사랑, 행운, 자연이라는 주제로 창의적인 주얼리와 위치를 제작해왔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컵플리케이션 위치 작품들을 탄생시키며 메종이 추구하는 고유한 서정적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 작품들은 메종이 전문성과 고귀한 소재, 그리고 예술적 기교의 만남을 아우르며 다이얼마다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표현한다. 2010년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의 포에틱 컵플리케이션 부문에서 최초로 영예로운 수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풍 데 자모르 위치(Pont de Amoureux)는 올해 네 가지 새로운 모델을 더하며 하나의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컬렉션은 파리의 다리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된 남녀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더블 레

트로그레이드 무브먼트가 시간과 분을 표시하며 알려주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연인은 정오와 자정에 입맞춤을 향해 서로에게 나아간다. 이 작품의 매혹적인 장식은 그리자유 에나멜 기법을 적용해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수채화를 그려내듯 표현했다. 다리 실루엣은 원근감이 더욱더 돋보이도록 골드 소재에 정교한 조각을 새겨 완성했다. 전체를 다이아몬드 세팅 및 사파이어 그레이이션을 더한 주얼리로 장식한 브레이슬릿과 함께 제공하며 오브(Aube) 및 수아레(Soirée) 모델은 옅은 핑크 사파이어 또는 강렬한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또 마티네(Matinée) 및 클레르 드 루(Clair de Lune) 모델은 옅은 블루 또는 짙은 블루 사파이어로 오묘한 그레이이션을 그려낸다. 더불어 반클리프 아펠은 올해 특별한 위치를 추가했다. 레이디 아펠 밸 데 자모르 오토메이트(Lady Arpels Bal des Amoureux Automate) 위치



남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풍경을 그려낸다. 이 풍경은 19세기에 사랑받았던 파리 교외 지역의 애와 댄스 카페인 쟁계트의 분위기와 매혹을 새롭게 해석한 모습이다. 오토마トン 무브먼트는 오후와 자정에 연인들을 가까이 마주하게 해 입맞춤의 순간을 이뤄낸다. 이 위치를 위해 메종은 새로운 오토마トン 무브먼트를 탄생시켰다. 덕분에 두 커플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거나 기울어지는 동작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리자유 에나멜 기법으로 만든 별빛 가득한 밤하늘, 축제 분위기로 빛나는 생생한 파리 거리의 모습 등은 반클리프 아펠 장인들만의 섬세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여준다.

마법같이 경이로운 미학의 세계,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

시간의 흐름을 조형 예술로 승화한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Extraordinary Objects)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의 궁극적 미학을 담고 있다. 올해 선보인 두 오토마トン 작품은 상징적인 정수를 보여준다. 사랑의 신 큐피드가 깃털 바구니에서 솟아오르는 장면을 묘사한 네상스 드 라무르 오토마トン(Naissance de l'Amour Automaton)은 플리크-아-주르 에나멜 날개를 펴덕이며 부드러운 카리옹 선율과 함께 솟아오른다.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다양한 핑크 사파이어로 구현된 큐피드는 철화석과 야나무 뿐만 아니라 화석으로 이루어진 보디 위에서 등장하며, 회전 링과 다이아몬드가 시간을 표시한다. 반면 메종이 재해석한 화려한 천체와 신비로운 우주를 표현한 플라네타리움 오토마トン(Planétarium Automaton)은 높이 50cm, 지름 66.5cm의 대형 오토마トン으로, 태양계의 행성들이 각자의 공전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 미학을 보여준다. 다이얼 중앙의 미스터리 세팅 루비로 구현된 별동별이 시간을 알리며, 별들이 무용수처럼 원형 궤도를 따라 회전한다. 태양은 5개의 골드 스템, 각 행성은 사파이어, 재스퍼, 문스톤 등으로 표현되며, 트랩 블러 효과로 진동을 더해 빛의 향연을 이룬다.

하이 주얼리 위치의 정수, 까데나 & 루방 미스테리유

1935년 처음 공개된 까데나(Cadenas) 위치는 자물쇠 형태의 손잡이와 유려한 더블 스네이크 체인 특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에디션은 엘로 골드 브레이슬릿과 프린세스 컷 사파이어,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룬다. 기울어진 다이얼은 은밀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1930년대 레디메이드 미학과 여성의 삶을 담아낸 반클리프 아펠의 상징적 작품이다. 쿠퍼트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루방 미스테리유(Ruban Mystérieux) 위치는 3.72개의 오벌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 미스터리 세팅 사파이어와 에메랄드가 조화를 이루며 손목 위를 감싼다. 미스터리 세팅은 1933년 반클리프 아펠이 특허 받은 기법으로

보석만으로 이뤄진 듯한 광채를 선사한다. 시간을 보는 물건이라는 시계의 정의를 다시 쓰는 반클리프 아펠은 이번 워치스 & 원더스에서 역시 위치메이킹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성과 예술을 덧입힌 경이로운 위치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들은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시를 쓰고, 예술을 완성하는 오브제임에 틀림없다. 반클리프 아펠의 시계는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경험으로 만들어낸다.

문의 1877-4128



1 다리 위에서 만나는 연인을 그려놓은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핑크 사파이어 소재의 레이디 아펠 풍 데 자모르 수아레(Lady Arpels Pont des Amoureux Soirée) 위치.

2 파리 거리 위를 에나멜로 표현하고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레이디 아펠 밸 데 자모르 오토메이트(Lady Arpels Bal des Amoureux Automate) 위치.

3 각종 스톤으로 장식된 큐피드가 플리크-아-주르 에나멜 기법이 적용된 날갯짓과 함께 우아한 자태로 솟아오르며 스스로 회전 동작을 보이다 곧 돌아가는 네상스 드 라무르 오토마トン(Naissance de l'Amour Automaton).

4 반클리프 아펠 회장 겸 CEO 캐서린 레니에.

5 1935년부터 반클리프 아펠을 대표하고 있는 시그니처 까데나(Cadenas) 위치. 엘로 골드, 화이트 골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로 완성했으며 스위스 쿠artz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024년 반클리프 아펠의 새로운 회장 겸 CEO로 임명된 그녀는 메종 특유의 우아한 애틀리ュ와 미소로 에디터를 맞이하며 이번 메종의 테마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반클리프 아펠만이 표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세계관을 들려주었다.

스타일 조선일보(아하 SC)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에거 르클르트에서의 경험을 거쳐 다시 반클리프 아펠로 돌아온 소감이 어떤가? 매우 기쁘다. 그동안 나의 커리어를 봤을 때 반클리프 아펠에서 15년간 함께 하며 팀과 메종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쿠족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여전히 이니셔티브로 론칭했는데, 다시 돌아오니 더 커진 스케일에 놀랐다. 그중 하나가 2012년 시작된 레콜 주얼리 스쿨(L'École School of Jewelry Arts)이다. 내가 흥미에 있었을 때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였다. 현재는 전 세계 4개의 캠퍼스로 확장되었다. 그간 이 모든 것들이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 메종이 아이덴티티에 끌어들이 목소리를 내는 출중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패트리모니(Patrimony)와 고객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SC 올해 워치스 & 원더스 신제품에 적용된 스토리텔링 외에 기술적 혁신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 하나는 포에틱 컵플리케이션처럼 좀 더 전통적인 형태다. 그리자유 에나멜링을 통한 다이얼과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담았고,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와 같이 다채로운 컬러를 보여준다. 레커, 인그레이빙 같은 요소를 통해 반클리프 아펠이기에 가능한 표현의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다. 또 올해 주요 혁신 중 하나는 레이디 아펠 밸 데 자모르 오토메이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브먼트의 개발이 필요했고 구체적으로 다이얼 속 연인들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세 가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 즉 태 메종과는 다르게 테마와 주제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무브먼트와 기술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투고자 'Lover's Ball(연인의 무도회)'이라는 주제를 떠올렸다. 두 연인이 다리 위에서 키스를 하고 파리의 거리에서 춤을 춘다. 특히 이 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4년간의 무브먼트 개발 기간이 필요했고, 오토마トン 무브먼트를 위해 무려 3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들도 반클리프 아펠에는 항상 서정적인 스토리가 최우선적 고려 대상이며, 메종의 유니버스를 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그다음이다.

SC 까데나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는 여성 위치 시장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의 흐름을 읽은 것인가? 1935년 탄생한 까데나 위치의 아름다움은 타임리스한 위치 디자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시간의 초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까데나 위치의 클래스프(clasp) 시그니처는 독보적이고 유니크하다. 여기에 현대 주얼리 퍼스들과의 조화, 스톤 세팅, 그리고 창작자를 향하며 신중하게 숨겨진 다이얼 등 여러 미학적 코드가 결합되어 더욱 특별하다. 그 때문에 까데나를 정기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즉 우리는 여성 위치 시장에 대한 공략을 위해 이 위치를 출시했다가보니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SC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이 작년에 자연, 동화, 요정 등의 스토리와 달리 올해 '사랑'이라는 테마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반클리프 아펠은 알프레드 반 클리프와 에스텔 아펠의 러브 스토리로 시작되었다. 메종 창립의 기반이 된 사랑 이야기를 기념하는 것은 정말 멋지고도 당연한 일이며, 사랑은 꾸준히 메종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아울러 우리 헤리티지 중 처음 기록된 주얼리 피스가 바로 하트 컷 다이아몬드였다. 사랑은 단지 우리 메종

이 탄생한 순간에만 있던 것이 아닌 모든 주얼리와 위치뿐 아니라 다른 제품이나 창작물의 크리에이티브 관점에서도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다. 이번 워치스 & 원더스에서는 '사랑'뿐 아니라 '파리'에도 경의를 표했다. 부스에서 볼 수 있는 무대 같은 파리의 거리, 아름답고 작은 공원과 벤치 같은 것들은 매우 파리다운 것이다. 이는 반클리프 아펠이 1906년 파리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선보인 위치들은 모두 메종의 기원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SC '사랑'과 '파리', 두 단어의 조합만 들어도 매우 로맨틱하다. 당신에게 두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흥미로운 질문이다. 나에게 사랑은 관심과 보살핌, 열정, 그리고 배우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두 사람 간의 만남도 있지만 아이들을 향한 엄마의 모성에도 사랑의 일부다.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결국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리는 대표적인 '사랑'의 도시다. 나에게 파리는 풍부한 유산, 문화, 건축,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이며 늘 기쁠 수 있는 곳이다.

SC 올해 워치스 & 원더스 신제품에 적용된 스토리텔링 외에 기술적 혁신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 하나는 포에틱 컵플리케이션처럼 좀 더 전통적인 형태다. 그리자유 에나멜링을 통한 다이얼과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담았고,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와 같이 다채로운 컬러를 보여준다. 레커, 인그레이빙 같은 요소를 통해 반클리프 아펠이기에 가능한 표현의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다. 또 올해 주요 혁신 중 하나는 레이디 아펠 밸 데 자모르 오토메이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브먼트의 개발이 필요했고 구체적으로 다이얼 속 연인들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세 가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 즉 태 메종과는 다르게 테마와 주제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무브먼트와 기술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투고자 'Lover's Ball(연인의 무도회)'이라는 주제를 떠올렸다. 두 연인이 다리 위에서 키스를 하고 파리의 거리에서 춤을 춘다. 특히 이 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4년간의 무브먼트 개발 기간이 필요했고, 오토마トン 무브먼트를 위해 무려 3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들도 반클리프 아펠에는 항상 서정적인 스토리가 최우선적 고려 대상이며, 메종의 유니버스를 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그다음이다.

SC 까데나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는 여성 위치 시장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의 흐름을 읽은 것인가? 1935년 탄생한 까데나 위치의 아름다움은 타임리스한 위치 디자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시간의 초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까데나 위치의 클래스프(clasp) 시그니처는 독보적이고 유니크하다. 여기에 현대 주얼리 퍼스들과의 조화, 스톤 세팅, 그리고 창작자를 향하며 신중하게 숨겨진 다이얼 등 여러 미학적 코드가 결합되어 더욱 특별하다. 그 때문에 까데나를 정기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즉 우리는 여성 위치 시장에 대한 공략을 위해 이 위치를 출시했다가보니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에디터 성정민(제네바 현지 취재)



GRAND COMPLICATIONS

Watches & Wonders | PATEK PHILIPPE

올해는 지금까지 숨겨놨던 혁신과 기술력을 더한 화심의 신제품을 내놓은 메종이 다수를 이뤘다. 그중 하나가 파텍필립이다. 많은 이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그랜드 앤드 위치메이커로 1839년 청립 이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랜드 커먼리케이션 위치를 선보이며 진정한 시계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 이름은 바로 쿼드러플 커먼리케이션 Ref. 5308G-001. 2023년 도쿄에서 열린 파텍필립의 시계예술전(Watch Art Grand Exhibition)에서 플래티넘 캐이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세계 최초로 선보였던 타임피스는 정규 모델로 출시하는 것. 파텍필립은 이번 신제품에서 미닛 리피터, 크로노그래프, 퍼페추얼 캘린더를 모두 담은 전작에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까지 추가해 더 업그레이드했다. 다이얼은 아이스 블루 컬러의 선버스트로 마감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지름 42mm, 두께 17.71mm 캐이스는 화이트 골드로 우아하게 완성했다. 아플리케 인덱스 및 핸즈는 다크 블루 컬러를 입혀 고급스러운 톤온톤의 선명한 대비 효과를 부여했다. 세 가지 다른 창으로 요일, 날짜, 월을 나란히 표시하며 윤년과 낮·밤을 표시하는 인디케이션은 3시와 9시 방향 카운터에 통합하고,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드와 함께 클래식한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를 배치했다. 해당 캘린더 기능은 정교한 부품과 맞물려 즉각적으로 디스크가 넘어가는 이른바 인스턴트 퍼페추얼 캘린더(instantaneous perpetual calendar)로 작동한다. 각 디스크는 자정 무렵 약 0.03초 만에 즉시 변경되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작에서부터 선보인 아이코닉한 기능적 요소다.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새로운 칼리버 R CHR 27 PS QI를 탑재했다는 것. 성능 최적화뿐 아니라 스플릿 세컨즈 메커니즘과 관련된 두 가지 기술 특허를 받아 특히 더 주목받고 있다. 무브먼트는 2개의 클래식 공과 해머 세트를 갖추어 차이잉 메커니즘을 구현하며 케이스 쪽 면의 슬라이딩 레버를 조작해 미닛 리피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파텍필립은 커먼리케이션, 노틸러스, 아야아웃, 칼리트라비, 지난해 성공적으로 문정한 큐비투스와 최초 퍼페추얼 캘린더를 적용해 그랜드 커먼리케이션을 애호하는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트렌디-포까지. 주요 컬렉션마다 골고루 신제품을 추가했으며, 퍼페추얼 캘린더와 워클리 캘린더 기능을 갖춘 31일 파워 리저브의 탁상시계를 선보이며 작년과 다른 존재감을 과시했다. 문의 02-6905-3339

쿼드러플 커먼리케이션
Ref. 5308G-001

Watches & Wonders | VACHERON CONSTANTIN

올해 메종 창립 270주년을 맞이한 바쉐론 콘스탄틴 메종은 무려 8년의 연구 및 개발 끝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먼리케이션을 지난 순목시계를 완성한다. 무려 41개의 커먼리케이션이 담긴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올트라 커먼리케이션 라 프리미에이다. 이 타임피스가 혁신적인 이유는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타 위치메이킹 메종에서 한 번도 함께 결합한 적 없는 다섯 가지 천문학적인 기능을 통합했다는 점에 있다. 먼저 핸섬 요소인 무브먼트 칼리버 3655는 각각에 특화된 기어트레인을 사용해

상용시, 태양시, 향성시 등 세 가지 시간을 다이얼 하나에 표시도록 한다. 특히 태양시를 구현하기 위한 트로피컬 기어와 군시자 인디케이터는 지구의 공전궤도와 자전축 기울기를 반영한 복잡한 천문 계산을 바탕으로 해 놀라움을 선사한다. 여기에 태양의 위치, 높이, 날씨, 적위까지 회전하는 사파이어 디스크와 카운터 핸드로 확인 가능하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시간에 따른 천체 추적 기능이다.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에 천구를 결합해 하나의 벌자리 또는 특정한 별이 관측자의 시야 중앙에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크로 천구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퍼페추얼 캘린더 및 문페이즈 기능은 물론 조수 측정, GMT 및 월드 타임 표시, 그리고 이번에 출원된 총 13건의 특허 중 7건을 차지한 웨스트민스터 미닛 리피터 등 수많은 커먼리케이션을 하나의 위치에 담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을 지름 45mm, 두께 14.99mm라는 손목에 올리기 편한 사이즈의 케이스에 집약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바쉐론 콘스탄틴은 위치메이킹 분야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기술적 위업을 또 한번 달성했다. 문의 1877-4306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올트라 커먼리케이션
라 프리미에

Watches & Wonders | HERMÈS

Time Suspended

시계는 기계지만, 시간은 시적인 마음이다. 우리는 작은 창으로 밖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찰자일 수도 있고, 창너머 스쳐가는 찰나의 순간을 붙잡는 여행자일 수도 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공간에서 새로운 에르메스 시계를 만났다.



2011년 탄생한 르 땅 서스펜디(Le Temps Suspended)는 에르메스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기능적으로 구현한 첫 번째 프로젝트다. '멈춘 시간의 미학'을 강조해 시간을 정지시키는(숨기는) 것인데, 실제로는 무브먼트가 작동하며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푸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현재 시간으로 돌아온다. 올해 4월에 열린 워치스 & 원더스 2025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에 이 비전을 접목했다. 아쏘 르 땅 서스펜디와 에르메스 커 땅 서스펜디가 그 주인공. 그리고 새로 선보이는 마이용 리브르도 만나보자.



아쏘 르 땅 서스펜디

말 등자에서 영감받아 만든 케이스와 비대칭 러그가 특징인 아쏘 컬렉션. 올해는 케이스 지름 42mm에 인하우스 무브먼트 H1837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워크 디자인을 결합했다. 9시 방향 푸시 버튼을 눌러 모듈을 작동시키면 시·분침이 12시 방향으로 모이고, 날짜 포인터가 사라진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모래 컬러의 브朗 테제트(brun desert), 자줏빛 루즈 셀리에(rouge sellier) 디자인과 로즈 골드 케이스는 선버스트 블루(bleu) 컬러 디자인과 조화를 이룬다.



1 올해 에르메스 부스는 시간에 흐르지 않고 재창조되는

'잠시 멈춤'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비주얼 아티스트 사라-아나이스 데브누아(Sarah-Anais Desbenoit)와 협업했다.

2 풀리온 차리한 750 화이트 골드 소재로 이루어진 세미 리지지(Semi-rigid) 구조의 브레이슬릿 위치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그리고 각 약 0.9캐럿 다이아몬드 4개의 센터 스톤을 세팅한 마이용 리브르 위치.

3 다양한 적용 방식으로 시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난 마이용 리브르 브로치 위치의 매트 블랙 오닉스 디자인 버전.

4 지름 42mm 케이스에 오픈워크 디자인으로 완성한 아쏘 르 땅 서스펜디.

5 에르메스 커 땅 서스펜디 중 시즌 한정 제품으로 선버스트 레드 디자인을 활용해 웨인드로도 스타일링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 위치는 다이아몬드 또는 테라코타 투르말린을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마이용 리브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센 당크르 체인 모티브를 활용한 마이용 리브르 컬렉션도 선보였다. 브로치 위치는 가장 오래된 남성용 액세서리 중 하나. 단독으로 브로치로 쓰용할 수도 있고, 가죽 스트랩을 활용해 웨인드로도 스타일링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 위치는 다이아몬드 또는 테라코타 투르말린을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문의 02-542-6622 글 장라윤



KEYWORD 2

MOTOR RACING DNA



Watches & Wonders | TAG HEUER

타임키팅 기술에 뛰어난 노하우를 지닌 태그호이어가 약 30년 만에 포뮬러 1® 공식 타임키퍼로 돌아온다. 이를 기념해 태그호이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1986년 첫선을 보인 포뮬러 1 컬렉션을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레이싱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에 역동적인 감각을 더해 아울 거지 모델로 구성됐다. 그중 세 가지는 코어 컬렉션으로 블랙 & 화이트 다이얼, 스틸 브레이슬릿을 갖춘 딥 블루, 대담한 레드로 전개된다. 각 타임피스는 1986년 출시된 오리지널 컬렉션의 유산을 계승하며 핵심 요소를 그대로 담아 컬렉터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각 소재와 컬러에 따라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모두 칼리버 TH50-00으로 구동한다. 모터 스포츠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탄생한 까렐라 컬렉션 역시 여섯 가지 새로운 모델로 선보인다. 까렐라 데이 데이트는 아이코닉한 실루엣과 다이얼 컬러를 강조하면서도 세밀한 디테일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더욱 커지고 간격이 넓어진 인덱스가 기동성을 높이어 동시에 세련된 외관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최신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재설계한 브레이슬릿과 스트랩으로 착용감을 개선한 점이 돋보인다. 메가 매뉴팩처 셀리타(Selita)의 자회사면서 보다 고급 지향의 무브먼트를 개발하는 스페셜리스트 AMT와 태그호이어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독점 자동 칼리버 TH31-02를 장착했다. 문의 02-3479-6021



Watches & Wonders | IWC

2013년부터 F1® 팀 메르세데스-AMG 펫트로나스(Mercedes-AMG PETRONAS)의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협력해온 MC 역시 모터 레이싱 DNA를 지닌 위치 브랜드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올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애플 오리지널 필름 〈F1®〉에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다. IWC는 이 영화에서 활약용 위치 제작뿐 아니라 이로부터 영감받은 신제품들을 이번 위치스 & 원더스에서 선보인다. 특히 영화 속 가상의 레이싱 팀 APXGP에서 영감받은 3종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위치가 대표적. 댱스 이드리스가 연기한 주수아 피어스가 착용한 파일럿 위치 퍼포먼스 크로노그래프 41(Ref. IW388309)부터 지름 4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바전의 파일럿 위치 크로노그래프 APXGP(Ref. IW378009)와 41mm 케이스의 파일럿 위치 크로노그래프 41 APXGP(Ref. IW388116)다. 두 모델 모두 영화 속 APXGP 팀에 현정하는 시계로 케이스 백에 골드 컬러로 프린트한 APXGP 팀 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영화 주인공이 착용한 제작 위치로부터 영감받은 인지니어 오토매틱 40(Ref. IW328908) 역시 1천 피스 한정 수량으로 선보였다. 문의 1877-4315

KEYWORD 3

SMALL BUT SPECIAL



Watches & Wonders | CARTIER

끼르띠에를 대표하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 라인에 스몰 사이즈를 추가해 원색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골드 & 스틸, 스틀, 골드 등 다양하게 선보이는 이 새로운 스몰 모델은 라지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이나만 선레이 디자일을 장착한 작은 케이스(27×34.5mm)와 고성능 퀴즈 무브먼트로 작지만 강한 변화를 꾀했다. 엘로 골드 배젤로 포인트를 준 산토스 드 스몰 위치를 가장 주목해볼 것. 문의 1877-4326

산토스 드 까르띠에 스몰

Watches & Wonders | CHOPARD

케이스의 사이즈를 다운시켜 더 작고 소중해진 소파드 '다이아몬트 컬렉션'의 주얼리 위치. 지름 26mm의 원형 케이스에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배젤을 더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배가했다. 특히 나무껍질을 표현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에서 극도로 세밀한 세공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 타원형, 쿠션형, 팔각형, 하트 셰이프 등 다양한 케이스로 출시된다. 문의 02-2118-6085

KEYWORD 4

BACK TO CLASSICS



Watches & Wonders | ROLEX

퍼페추얼 로터를 적용한 최초의 롤렉스 시계에서 영감받은 '1908' 위치는 지름 39mm의 케이스에 교차로 장식한 아라비아숫자와 각면 처리한 인덱스, 무브먼트의 세밀한 디자인과 로터의 회전을 감상할 수 있는 투명한 케이스 백이 큰 특징이다. 수심 50m까지 방수 가능한 케이스는 내부에 장착된 무브먼트를 최적의 상태로 보호해준다. 문의 02-6370-4298

브랜드의 유산을 짧고 강렬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의 미학적 코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랑 운트 죄네의 '1815' 위치는 기자 선로 형태의 미닛 스케일, 아라비아숫자, 6시 방향에 위치한 서브 세컨즈 다이얼 등에서 브랜드의 초기 포켓 위치를 연상시킨다. 제품명은 브랜드 창립자 페르디난드 아돌프 랑(Ferdinand Adolph Lange)의 출생 연도에서 따왔으며 지름 34mm, 두께는 6.4mm으로 화이트, 핑크 골드, 총 두 가지로 출시된다. 문의 02-3479-1349

Watches & Wonders | A. LANGE & SÖHNE

KEYWORD 5 🔎

LIKE JEWEL

Watches & Wonders

VAN CLEEF & ARPELS



Watches & Wonders | PIAGET

Watches & Wonders | BVLGARI

올해 트렌드 중 하나인 주얼 워치.
'루방 미스테리유(Ruban Mystérieux)' 워치는 다이얼 위
3.72캐럿의 오벌 것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에메랄드로 리본을 형상화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담은 젠스토 장식을 통해
반클리프 아펠만의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단번에
확인시켜준다. 문의 02-1877-4128

새로운 세이프로 모던 주얼 워치의 의미를 정립한
피아제 '식스티(Sixties)' 컬렉션. 사다리꼴의 독특한
케이스에 정교하게 장식한 다이아몬드 베젤과 가드룬
장식, 간결한 로마숫자 인덱스와 바톤 핸즈 등을 더했다.
1960년대 말 메종의 유산을 기념해 탄생한 만큼 당시
피아제를 상징하는 디테일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02-3449-5934

이번 시즌 불가리의 아이코닉한 워치, 세르펜티가 대담한 진화를
감행했다. 상장과도 같은 뱀의 눈과 비늘 등을 과감히 배제하고
오로지 금빛 실루엣으로 뱀의 형상을 간결하고 힘 있게 표현한
것. 나선형 뱃길 디자인에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그 어느 때보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감성을 잘 표현한다.
영속성, 유연함, 정교함 등이 어우러져 완벽한 작품과도 같다.
문의 02-3438-6006

KEYWORD 6 🔎 ARTISTIC DIAL

Watches & Wonders | H. MOSER & CIE.

인데버 투르비옹
터콰이즈 에나멜



무한한 상상력을 다이얼에 구현한다면? 대담한
컬러매치, 레커 마감, 인그레이빙 등 고도로 숙련된
장인의 터치로 완성한 예술적 면모의 워치를 만나볼
시간이다. H. 모저앤씨의 '인데버 투르비옹 터콰이즈
에나멜' 워치는 블루빛 터쿼이즈 에나멜 다이얼,
과감히 삭제한 인덱스와 브랜드 로고, 나뭇잎을
형상화한 핸즈, 마지막으로 그레이 오스트리치 레더
스트랩을 더해 대담한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다이얼 위에 드러난 스켈레톤 구조의 레드
골드 로터는 와인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체 무브먼트의 조형미까지 살린다.
문의 02-6905-3363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 에나멜'의 진면목은
회전하는 케이스를 뒤집음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난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표현한 케이스 백 위로 교차된 두 표시창은 케이스 상·하단 케이스에
장식된 기드룬과 조화를 이룬다. 짙은 블루 컬러로 레커 처리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와 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워치 중앙의 작은 원 안에 장식된 태양과
달은 낮과 밤을 나타낸다. 10피스 한정판. 문의 02-6905-3398

Watches & Wonders | JAEGER-LECOULTRE

KEYWORD 7 🔎

NAME OF BLUE

Watches & Wonders | TUDOR

올해 워치스 & 원더스 트렌드 컬러는 '블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메종에서 블루 컬러를 자신만의 색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중 투더도 한 포지션을 차지했다. 이번에 투더는 지름 43mm의 완전히 새로운 블랙 베이 모델을 선보이며 컬렉션을 확장했다. 컬러 장인이라 불릴 정도로 선명한 컬러를 구현하는 투더가 선택한 다이얼 컬러는 블루와 화이트. 두 컬러 모두에 적용한 블랙 베이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디테일은 더 거친 케이스와 가독성으로 빛을 발한다. 한 방향 회전 베젤과 인서트에 새겨진 숫자, 초기 다이얼 위치의 디자인을 반영한 룰리睬 형태의 초침과 시선을 사로잡는 인덱스까지. 여기에 오리지널 모델의 비율은 유지하면서 더 얇아진 케이스, 새롭게 디자인한 크라운과 매끄러운 측면을 갖춘 전체 새틴-브러시드 3열 링크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간편하게 교체 가능한 T-FIT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번 블랙 베이 출시와 함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위해 또 하나의 블랙 베이 모델을 스위스 연방계측학협회(METAS)에 제출했으며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해 기쁨을 더했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601-U로 작동한다.
문의 02-517-3568



Watches & Wonders | PANERAI



올해도 역시 파네라이는 이탈리아 해군에서 시작된 그들의 유산을 가득
담은 루미노르 컬렉션을 더욱 확장시켰다. 새로운 디테일과 기술적인 요
소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모델은 메종의 이름과 컬렉션
명인 루미노르 마리나(Luminor Marina)만을 표기한 미니멀한 다이얼 디
자인이 특징이다. 또 이번 컬렉션의 핵심은 파네라이의 아이코닉한 기술
력인 슈파-루미노비® X2를 적용했다는 것. 더 밝고 선명해진 야광으로
저조도 환경에서도 탁월한 기독성을 보장한다. 새로운 루미노르 마리나
시리즈에는 P900 칼리버를 장착했다. 칼리버의 슬림한 비율(12.5mm)
덕분에 케이스 두께와 무게가 줄어 촉용감 또한 한층 개선되었다. 그중
파네라이의 상징과도 같은 컬러인 블루 선 브러시드 다이얼을 적용한 루
미노르 마리나 스틀 모델은 빼놓을 수 없는 탑리프스다. 지름 44mm 케
이스로 제작되어 파네라이의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 강도
와 부식 저항성이 뛰어나며, 저탄소 변형 합금으로 더욱 향상된 내구성
을 제공한다. 문의 02-1670-1936 에디터 성정민, 김하얀



루프 프린지를 일정한
길이로 엮어 완성한
비스코스 소재 레이저백
톱 가격 미정 품 포드.
문의 02-6905-3640



크고 작은 볼 스터드와
유려한 스웨이드 프린지
조합이 애스너한 분위기를
전하는 넬코트 백 3백40
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5.
블랙 & 브라운의 타이거
프린트가 존재감을 더하는
송지 소재 바깃 백 가격
미정 자안비토 로시.
문의 02-6905-3690
에디터 김하얀



The Swinging

흔들리지 않아도 좋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프린지 아이템의 형태적
존재감.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두 가지 다른 모양의
프린지가 특징인 마젠타
컬러의 양가죽 소재 트리 트리
60만원대 미우미우. 문의
080-522-7198. 의도적으로
풀어헤친 패브릭이 프린지를
연상시키는 포터리드 예바 뮤
가격 미정 패리가모. 문의
02-3430-7854. 가늘고
긴 하늘색 스웨이드 프린지로
장식한 태슬 참 가격 미정
맥원 문의 02-6105-2226

Everlasting Shine

위에서 바라보니 더욱 분명해진다. 포멜라토 누도 컬렉션의 광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젬스톤을 고정하는 프롱을 과감히 생략하고 57면의 비규칙적 커팅을 선택해 브랜드의 혁신과 고유성이 또렷이 드러난다. 지난 4월 포멜라토가 서울 성수에서 누도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와 신제품 '미니 누도' 라인의 공개를 알렸고, 이를 기념해 행사 바로 하루 전날 한국을 찾은 포멜라토 CMO 보리스 바르보니(Boris Barboni)를 만나 일문일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고객을 동반자 또는 친구라 칭하며 포멜라토 하이 주얼리가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기를 희망한다. 정교한 장인 정신과 구조적 조형미, 젬스톤의 무한한 가치, 브랜드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이어진 그날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한다.

1. 포멜라토 창립자 피노 라볼리니(Pino Rabolini)는 당시 건축가, 디자이너, 기업의 중역으로 활동하던 여성들을 위해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모던한 주얼리를 디자인했다. 전통적인 주얼리 디자인에서 벗어난 이 혁신적인 스타일은 지금 포멜라토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 초석이 됐다. 두 번째는 장인 정신. 포멜라토 주얼리는 기계 공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장인의 손에 서만 탄생한다. 수작업이 아니면 탄생할 수 없는 고선 실루엣이 바로 그 증거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다. 내가 고객을 친구라고 칭하는 이유기도 하다. 재능과 창의성, 지성과의 만남은 영감의 원천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케이스다.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며 젬스톤의 화려한 미감을 탐구하고 주얼리에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다. 이런 태도와 성장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겠다.

2. 포멜라토가 생각하는 하이 주얼리란, 하이 주얼리가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란다. 우리는 원석 자체의 광채와 유려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다채로운 착용법을 제안함으로써 웨어러블한 하이 주얼리 신을 새로이 개척하고 있다. 1990년대 하이 주얼리의 주목적은 본인 만족과 투자, 사고 모임이었다. 포멜라토는 사치와 동일시되던 하이 주얼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일종의 이단아 같다고 할까. 물론 보석은 값은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 하지만 하이 주얼리를 구매하는 고객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빅 이벤트를 고대하기보다 매일 주얼리의 무한한 광채를 온전히 누리길 바란다. 포멜라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센초 카스탈도(Vincenzo Castaldo) 역시 이 부분을 늘 강조한다.

3. 누도 컬렉션의 관전 포인트는? 위에서 바라볼 때 주얼리가 부유하는 듯한 느낌, 바로 그것이다. 보통 주얼리는 58면으로 깎지만 누도 컬렉션의 스톤은 비정형적으로 깎은 57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일반적으로 프롱이 스톤을 단단히 고정하지만 하단 부분을 과감하게 직선으로 커팅해 젬스톤만의 입체적인 불룸을 강조했다. 그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바라봐도 투명하고 깨끗한 반짝임을 자랑한다. 포멜라토이기에 가능한 고유 기술이며 스톤의 광택과 빛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장인 정신과 환상적인 컬러 매치를 빼놓을 수 없다. 내일 팝업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은 자유로운 믹스 매치를 가능케 하고, 각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완벽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세 가지 이상의 누도 링을 함께 레이어드할 때 또 다른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4. 입체적인 곡선적 '스퀘어' 세이프를 생각해낸 시작 점이 궁금하다. 라운드 불룸의 이코니카, 두 영혼을 뜻하는 투게더, 그리고 품모닷 등 포멜라토의 디자인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귀결된다. 누도 컬렉션 역시 유연



한 실루엣이 핵심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
에 선보인 포멜라토의 빈티지 체
인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당시 수
작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공정을 곡선형으로 선택했다고. 수많은
곡선은 독창적인 조형미를 만들고 이는
포멜라토의 긍정성을 표방한다. 포멜라토
로고 역시 각진 곳 하나 없이 곡선으로
떨어지지 않나. 주얼리를 통해 즐거움,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하고 싶다.

5. 이번 시즌, 새로 공개한 블루 컬러의 '미니
누도' 컬렉션에 눈길이 가더다. 누도 컬렉션은 단자나
이트, 화이트 토파즈, 루벨라이트 등 총 아홉 가지의
컬러 세이프를 갖추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스카이
블루와 런던 블루 토파즈를 미니 누도 디자인에 녹여
냈다. 종전의 제품보다 더 섬세하게 디운사이징된 덕
에 포멜라토의 다른 주얼리와 레이어드하기 좋다. 펜
던트, 뱅글, 이어링으로 출시했으며, 다른 누도
라인과 동일하게 유연한 구조와 스웨어 젬스
톤이 특징이다. 물론 스톤은 스카이 블루 토파즈
또는 런던 블루 토파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
에게 전할 말이 있다. 내일 오픈하는 팝
업 행사로 누도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
이 나눴지만, 포멜라토에는 수많은 주얼리를 존
재한다. 모두 최상급 스톤을 선별해 예술적인
동시대적 미감으로 마무리한 주얼리들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미학적 코드와 비교 불가한
예술성이 깃들어 있다. 더욱이 서울 팝업은 렉서
리업계에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브랜드 측면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서울과 친
구들(고객)을 만나고 싶다. 문의 0030-8321-
0441 에디터 김하얀



1. 포멜라토 CMO 보리스
바르보니(Boris Barboni).

2. 로즈 골드에 총 7.2캐럿의
스카이 블루 토파즈 2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조화롭게
장식한 누도 미니 브레이슬릿.

3. 레몬 퀴즈, 런던 블루 토파즈
등 다양한 스톤의 누도 링을
레이어드할 때 누도 컬렉션만의
색다른 멋을 즐길 수 있다.

4. 생수 팝업 행사장.
5. 10.5캐럿의 루벨라이트
펜던트와 청인 링크에 일정한
길이로 총 2.5캐럿의
다이아몬드 2백 38개를 세팅한
로즈 골드 누도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6. 스카이 블루
토파즈를 세팅한 기본 사이즈의
누도 네크리스와 이번 시즌
새롭게 사이즈를 다운시켜
완성한 런던 블루 토파즈의
'미니' 누도 네크리스는 극명한
사이즈 차이를 이룬다.

Get

The

List

서머 룩에 품격을 더하는 특별한 선택.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BVLGARI
(왼쪽부터) 카라칼라 스파의 로만
모자이크 패턴에서 영감받은
부채 모티브가 아이코닉한
선사하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
로즈 골드 소재에 말라카이트
인서트와 다이아몬드 패브
세팅으로 완성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1천2백20만원, 로즈
골드에 말라카이트 장식 주위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8백70만원
모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CHANEL
FINE JEWELRY**
(위부터) 아이코닉한 사설의
상장인 숫자 5를 모티브로 완성한
18K 엘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오픈 스타일의
엑스트레 드 N°5 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해 블룸감을
더한 이태날 N°5 링 모두
가격 미정 사설 화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BREGUET
나폴리 여왕 카를린 뮤라를
위해 제작된 최초 손목시계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으로 우아한
민트 컬러와 매더오브펄 디자인의
조화가 아름다운 레인 드
네이플 8918 민트 가격 미정
브레게. 문의 02-6905-3571



VACHERON CONSTANTIN
메종 창립 270주년을 맞아
3백7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타임피스로 지름 40mm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에
270주년 기념 모티브를 담은 실버
톤 디자일이 돋보이는 패트리모니
셀프 워인딩 5천1백50만원
비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LOUIS VUITTON
(위부터) 유명한 일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아이코닉한 테마를
담은 유쾌하고 우아한 LVXTM
팬 체리. 선명한 레드와 데님의
조화를 이뤄 더운 여름 시원하고
팜한 감성을 준다. 70만원대.
역시 익스클루시브한 루이 비통
×무라카미 다카시 리아디션
컬렉션으로 모노그램 패턴에
체리 포인트가 돋보인
LVXTM 모노그램 세리즈 팬
30만원대. 모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CARTIER
(위부터) 엘로·핑크·화이트
골드, 3개의 밴드가 한데 엮여
아이코닉한 느낌을 선사하는
트리니티 컬렉션 이어링 5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랑에안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블룸감을 부여한
트리니티 쿠션 링 2천7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LORO PIANA
2025 여성 리조트 컬렉션으로
출시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엑스트라 백 L27. 송아지가죽에
리넨 소재를 매치해 가볍고
시원한 감성을 주며 은은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휴양지
무드를 선사한다. 5백63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RALPH LAURE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탈리아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한,
이웨스트리언 헤리티지에 모던한
감성을 더한 웰링턴 페린 카프
스킨 로퍼 1백2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플로 말렛 실루엣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풀리싱
마감한 스틀링 실버를 사용해
이탈리아에서 정교하게 제작한
말렛 그레이 카프 40만원대,
스털링 실버 소재의 라지 ID 체인
브레이슬릿 1백4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문의 02-3438-6235
에디터 성정민

Shall We Cherry?

올여름,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새빨간 체리가 루이 비통의 다양한 아이템을 수놓았다.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가 다시 만나 그려낸 리에디션,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캡터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1



2



3



4

Legendary Collaboration is Back

루이 비통과 현대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 (Takashi Murakami)의 리에디션 컬렉션은 단순한 복각이 아니다. 2000년대 초 대중문화에 선 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들의 협업은 이번에도 독창성과 장인 정신,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다시 한번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허문다. 전통 일본화와 현대 문화 요소를 융합한 슈퍼플랫(Superflat) 스타일의 창시자 무라카미 다카시, 루이 비통의 리에디션 컬렉션은 그의 대표 모티브인 판다와 스마일 플라워, 체리 블로섬 등이 충출동해 한층 화려해진 모습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리에디션 컬렉션은 아이코닉한 시티 백과 실크 스카프, 스니커즈, 주얼리, 향수에 이르기까지 무려 2백 점 이상으로 구성되어 폭넓을 뿐만 아니라 무라카미 특유의 컬러풀한 미학이 반영된 패턴은 디지털 인쇄 기술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구현되었다.

2025년 1월, 첫 번째 캡터는 멀티컬러 모노그램으로 33가지 다양하고 발랄한 색상으로 구현된 LV 로고와 플라워 패턴으로 화려함을 극대화한 스니커즈와 샌들은 걸음마다 모두의 시선을 끈다. 이와에 열쇠고리나 귀고리, 체리 모양 참 등 작은 액세서리에도 사랑스러운 무라카미 감

화했고, 이어 선보인 두 번째 컬렉션은 체리 블로섬을 테마로 해 3월, 봄의 시작을 화사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둔 5월, 리에디션 컬렉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캡터를 선보이며 선택한 대망의 마지막 테마는 바로 체리다.

The Cherry is Coming

무라카미 다카시의 미학에서 체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유쾌함, 소년성과 소녀성, 순수함을 상징하는 오브제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재기 발랄한 체리 캐릭터를 가방과 스니커즈,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와 향수 라인에까지 모두 적용해 더욱 생동감 있는 무드를 전해준다. 컬러풀하면서도 팝한 분위기의 체리들은 때로는 윙크를 하고, 유쾌한 웃음을 짓는 등 패턴을 넘어 다채로운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루이 비통의 시그너처 백인 스피디에 활짝 웃는 체리 캐릭터를 그려 스타일에 경쾌함을 더하고, 아웃솔이나 힙에 체리를 입체적으로 부착한 스니커즈와 샌들은 걸음마다 모두의 시선을 끈다. 이와에 열쇠고리나 귀고리, 체리 모양 참 등 작은 액세서리에도 사랑스러운 무라카미 감

성이 가득 담겨 있다. 이번 리에디션의 세 번째 캡터는 귀엽고 발랄한 디자인을 통해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예술과 럭셔리의 결합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아트와 패션의 달콤한 교차점, 그 중심에 선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 리에디션 컬렉션의 세 번째 캡터를 장식한 체리 컬렉션을 통해 올여름 유쾌한 스타일을 즐겨보자.

문의 02-3432-1854 김주혜

Make a Choice

데일리 룩에 남성미를 더해줄 남성 향수 리스트 7.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The Evolution of Great Heritage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더 헤리티지'의 개관이다.

유서 깊은 1930년대 건축물을 복원하고,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적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채웠다.
더불어 본관은 '더 리저브'로, 신관은 '디 에스테이트'로 재단장한다.



건축물에도 수명이 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건축물은 가치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얻기도 한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은 파리의 오르세 기차역이 대표적인 예다. 한때 기차 운행이 중단되며 버려진 공간이었다가 1986년 미술관으로 재탄생 했다.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파리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서울의 중심, 남대문과 명동 사이에 자리한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도 한동안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잡들어 있었다. 1935년 처음 준공된

이 건축물은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한 네오 바로크 양식의 대표작이다. 은행 건물로는 해도 다른 생명을 얻기도 한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은 파리의 오르세 기차역이 대표적인 예다. 한때 기차 운행이 중단되며 버려진 공간이었다가 1986년 미술관으로 재탄생 했다.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파리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서울의 중심, 남대문과 명동 사이에 자리한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도 한동안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잡들어 있었다. 1935년 처음 준공된

“
재생 건축이라는
지속 가능한 행보
속에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내
대표 유통 기업의
야심 찬 포부가
엿보인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더 헤리티지'

이 특별한 공간에 신세계백화점이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더 헤리티지(The Heritage)'라는 이름으로 국내 럭셔리 유통 시장을 이끌 랜드마크를 개관한 것이다. 주변 일대가 신세계백화점의 탄생 배경이라는 점 또한 의미 있다. '재생 건축이라는 지속 가능한 행보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내 대표 유통 기업의 야심 찬 포부가 엿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했고, 30자례 이상의 자문을 통해 기존 건물을 최초의 모습과 90% 가깝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1층의 꽃 모양 석고 부조를 원형 그대로 재현한 점이 눈길을 끈

다. 과거 은행에서 사용했던 금고의 문 또한 고스란히 되살려 전시장으로 옮겨놓았다. 물론 단순히 복원에만 치중하지 않고 신세계만의 현대적 해석도 가미했다. 하얀색 강철 패널로 제작한 남측 커튼 월은 뉴욕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 & 뮤지엄'에서 영감을 받은 것. 건물에 트렌디한 느낌을 더하는 동시에 기존 화강암 외벽과 해사한 조화를 이룬다. 옥상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해체하는 대신 도심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야외 정원을 조성했다. 또 이동 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등 고객의 편의에도 신경 썼다.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의 전통을 한자리에

'더 헤리티지' 1층과 2층에는 세계적인 패션 명가인 샤넬의 플래그십 브이브이가 자리 잡았다. 하우스와 오랜 시간 협업해온 세계적 건축가 피터 마리노가 매장 설계를 맡아, 건축물의 역사적 요소에 샤넬의 DNA를 접목한 색다른 공간을 선보인다. 넓은 공간을 활용한 효율적 배치도 장점이다. 레디투웨어(RTW)와 핸드백, 슈즈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워치 & 하이주얼리 살롱도 따로 마련했다. 여기에 피터 마리노가 직접 선정한 70여 점의 예술 작품과 오브제가 어우러져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 건축학적 보전 가치가 높은 '더 헤리티지' 4층은 역사관과 갤러리로 꾸몄다. 역사관에서는 대한민국 근대 유통을 이끌어온 신세계의 다양한 소장품과 유물, 사료 등을 전시한다. 갤러리 개관전으로 1930~50년대 남대문과 명동 일대를 조망한 사진전 <명동 살롱: The Heritage>가 열리고 있다. 한영수, 임용식, 성두경 등 사진가 3명의 시선을 통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그 당시 풍경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최상부인 5층에는 '하우스 오브 신세계 헤리티지'가 자리한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신세

- 1 1935년에 지은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을 재건축해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한
네오바로크 양식의 대표작이다.
2 건축물의 역사와 밸브처를
살펴볼 수 있는 4층 전시장.
3 과거 창문에 장식되어
있던 꽃 모양 석고 부조를
그대로 재현했다.
4 기존 건물을 90% 기량
복원하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 시설을 확충했다.
5, 6, 7, 8 한국의 문화유산을
신세계의 인목으로 풀어낸
5층의 '헤리티지 오브
신세계'. 현재는 보자기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
<담아 이르다>를 진행 중이다.
9 정갈한 분위기의 디저트
살롱에서는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계절을 담은
한과와 시그너처 디, 18
세기 저서에 기초해 개발한
오리지널 브랜드 티
등을 맛볼 수 있다.
10, 11, 12, 13 지하 1층에
마련한 공연 기프트
숍에서는 한국의
헤리티지를 담은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7
698
699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8
789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7
798
799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8
879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8
889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5
896
897
897
898
899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Wonderful Wellness

아름다운 해변을 간직한 베트남 중남부의 한적한 해안 도시 나트랑에 위치한 빌라 르 코라이, 그란 멜리아 나트랑. 이곳에서 스파 테라피를 통한 휴식, 활력을 일깨우는 보디 무브먼트, 마인드풀니스, 웰니스 퀴즈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거예요, 마사지사의 동작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해독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송스피의 테라피스트는 이처럼 덧붙였다. 다음 날 아침은 요가의 흐름과 베트남 전통 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움직임인 무브먼트 테라피로 시작된다. 고대 요가 자세와 호흡법을 동양철학과 결합해 몸과 마음 모두를 회복시키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사용한 후에는 최상의 자연 식재료로 구성한 건강한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할 차례. 각 요리는 온행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양한 메뉴를 코스 형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데, 에너지와 내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금치, 케일, 원두콩같이 신선한 녹색 채소, 파인애플, 생강, 강황 등 소화를 촉진하고 몸에 온기를 더해주는 식재료, 과일 등을 배합해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 4개의 침실과 별도의 라운지, 칸이 주방이 있는 다이닝 룸, 바다를 내려다보는 테라스와 전용 수영장을 갖춘 비치 프런트 빌라.

2 시원한 바다 뷰의 날지한 수영장을 즐길 수 있는 오션 프런트 원 베드룸 풀 빌라.

3 오션 프런트 원 베드 룸 풀 빌라. 가실 풍경. 네트한 그늘로 다수의 인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4 송스피에서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보디 마사지부서, 바다에서 얻은 천연 성분을 사용한 페이스 & 보디 케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5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로베르트 카발리의 풀 인테리어를 적용한 그랑 오션 빌라.

김각적인 기구 및 인테리어 요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6 바다 전망의 고급 일본 레스토랑 시부이에서 신선한 재료와 세련된 감각으로 완성한 시시 오카세와 철구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문의 디벨롭컴퍼니 1551-1151. 에디터 이다현

프라이빗한 풀 빌라에서의 온전한 휴식

베트남의 나풀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 나트랑. 꼽라인 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 위치에 자리한 빌라 르 코라이, 그란 멜리아 나트랑은 페어리 마운틴 베이 해변과 인접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배치가 인상적이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3백여 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스페인 본사의 호텔 브랜드 '펠리아 호텔 인터내셔널'의 고급 브랜드인 만큼 '웰니스적인 삶'을 지향하는 스페인 정신과 베트남식 흰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리조트는 총 44헥타르 규모로, 99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든뷰 룸부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해안 스위트, 수영장이 있는 리조트 빌라, 풀 파빌리온, 약 638m²(1백93평)에 달하는 4베드룸 그란 오션 풀빌라까지 총 20여 가지 다양한 객실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7월 오픈한 빌라 르 코라이, 그란 멜리아는 훌륭한 부대시설로도 유명하다. 전용 해변을 갖추어 한적하게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넓은 애완동물과 풀사이드 바도 준비되어 있다. 온천, 렉서리 스파 시설을 갖춰 일상 속 육 피로를 눈 녹이듯 녹여낸다. 만족스러운 식사도 이곳의 장점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프 마르코스 모리가 선사하는 신선한 프리미엄 스페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하

클래식 터치 테라피로 몸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부드러운 증기로 피부를 정화하는 하암을 곁들인 탈라사 스파로 활력을 일깨우며, 시그니처 테라피인 송테라피를 통해 피로처럼 이어지는 부드러운 풀 스트로크로 몸을 말기고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사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이어가는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Aman Nai Lert Bangkok)

단단한 뿌리 위에 세운 도심의 풍요로운 안식처

알록달록한 불빛을 요란스럽게 뿜어내며 도로를 활주하는 명물 '툭툭'과 날카롭게 하늘을 향해 치솟은 건물숲으로 뒤덮인 스카이라인, 불교의 나라답게 수많은 사원까지 화려한 생동감이 깃든 특유의 분위기를 지닌 전태만상의 도시 방콕. 방대한 토양에서 비롯된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꽃과 운기나긴 미식의 역사를 자랑하듯 미슐랭 레스토랑,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과 바(bar) 목록에 단골처럼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 태국의 심장이다. 덕분에 관광으로 따지자면 아시아 지역 최상위를 다투는 메트로폴리스이기도 한 방콕에는 그 명성에 걸맞은 럭셔리 브랜드 호텔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기에, 웬만해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분위기다. 물론 그 명단에 더해지는 브랜드가 '아만(Aman)'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스탬프 찍기' 하듯 세계 곳곳의 아만을 찾아다니는 골수 팬들이 있을 정도로 팬덤이 단단하고, 그만큼 차별된 오라와 독보적인 위상을 점한 브랜드 아니던가. 더구나 아만의 역사가 바로 태국에서 비롯되었기에, 방콕에서의 등장은 더 뜻깊을 수밖에 없다. 싱그러운 나무 향 가득한 봄날의 정원을 품은 채 문을 연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Aman Nai Lert Bangkok)에 다녀왔다.



2



3

'아만 정기'라는 표현이 존재할 정도로 럭셔리 호텔업계에서 브랜드 팬덤이 남다른 아만(Aman). 새로운 아만의 공간이 생기면 반드시 찾아가는 열정과 충성심을 지닌 팬들로 유명하지만 지난 4월 초 문을 연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Aman Nai Lert Bangkok)의 등장은 특히 더 주목을 끌 만한 이유가 있다. 1988년 리조트업계에 강렬한 인상과 함께 지속적인 파장을 일으킨 아만 1호인 아만푸리(Amanpuri)가 바로 태국에 자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뚜렷), 요즘 럭셔리 호텔의 역동적인 격전지가 방콕이기도 해서일 터다. 사실 대자연 속 '외딴 절경'을 품은 보석 같은 땅을 기막히게 밭굴해내는 위치 선정의 달인인 아만이 베니스(2013), 도쿄(2014), 뉴욕(2022) 같은 내로라하는 도시의 명성을 그대로 이름에 넣은 호텔을 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접근성이 좋은 인기 도시에서도 아만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들도 있었지만, 브랜드 정체성이 희석될까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살짝 의구심을 품은 채 도심형 아만을 찾자며 경험해본 필자는 매번 브랜드의 정수를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험을 내두는 정도의 세심한 노력과 투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스토리텔링의 매력을 감탄해왔기에 방콕의 사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못해 궁금했다.

'녹음에의 의지'를 드러내는 호텔과 레지던스
햇살 사이로 스며드는 싱그러운 나무 향이 기분 좋게 코를 자극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듯 청新的 봄날, 대사관들이 위치한 룸피니 지역에 화려하게 자리한 아만

1 대사관들이 위치한 룸피니 지역에 화려하게 자리한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

2 지난 4월 초 문을 연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의 입구.

3 로비가 있는 9층에 위치한 상징적인 작품, 금 소재

입사구가 6천 개나 달린 12m

높이의 큰 조각으로 실제 모델인

침추리나무는 호텔 부지에

자리한 나이лер트 공원에 있다.

4 작지만 깊고 아름다운 녹음을

뽐내는 나이лер트 공원은 아름에도 사유지라 더 한적한 운치를 자아낸다.

분명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의 총 지배인 테드 터커가 아만을 상징하는 수식어로 꼽은 '고요함(Serenity)'이 풍만하게 깃든 명이다. 그의 설명처럼 아만은 태국에서 36년 넘게 존재감을 떨쳐오며 잘 자리 잡고 있기에 돈독한 파트너십이 성사되는 데 보탬이 됐을 것이다. 공원 내에는 실제 그들의 옛 저택으로 오래된 가구, 미술품 등 가문의 역사를 풀어볼 수 있는 '나이лер트 파크 헤리티지 홈(Nai Lert Park Heritage Home)'도 있다. 이곳에 걸린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표범을 반려동물로 삼을 정도로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자녔던 창립자(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사업(무역)과 행정(관료)을 넘나들고 럭셔리 호텔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던 나이лер트 가문의 이름은 호텔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아만 계열에서 처음이다).

나이лер트는 '신록의 정기'로 맞이해졌다. 정문 앞 가지런히 줄을 선 키 큰 나무들을 뒤로하고, 로비층인 9층으로 올라가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 형태의 커다란 조각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접했던 작품이지만 금 소재 입사구가 6천 개나 달린 12m 높이의 큰 조각이 공간을 화사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물들이는 실물의 존재감은 확실히 달랐다. 이 범상치 않은 조각의 실제 모델인 침추리나무는 호텔 부지에 자리한 나이лер트 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나이лер트'는 아만의 이번 방콕 프로젝트 파트너인 태국의 명문가로 이 공원 역시 소유하고 있다. 작지만 울창한 녹음을 뿐내는 나이лер트 공원은 아무래도 사유지라 더 한적한 운치를 자아낸다. 분명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의 총 지배인 테드 터커가 아만을 상징하는 수식어로 꼽은 '고요함(Serenity)'이 풍만하게 깃든 명이다. 그의 설명처럼 아만은 태국에서 36년 넘게 존재감을 떨쳐오며 잘 자리 잡고 있기에 돈독한 파트너십이 성사되는 데 보탬이 됐을 것이다. 공원 내에는 실제 그들의 옛 저택으로 오래된 가구, 미술품 등 가문의 역사를 풀어볼 수 있는 '나이лер트 파크 헤리티지 홈(Nai Lert Park Heritage Home)'도 있다. 이곳에 걸린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표범을 반려동물로 삼을 정도로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자녔던 창립자(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사업(무역)과 행정(관료)을 넘나들고 럭셔리 호텔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던 나이лер트 가문의 이름은 호텔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아만 계열에서 처음이다). 1872에서도 다양한 메뉴의 식사와 신선한 제철 과



4

5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은 객실 전부(52개)가 스위트룸, 그리고 34개의 레지던스로 이루어졌다.

6 호텔 건물 12층에 자리한 인상적인 아트리움.

7 로비층에 자리한 아만의 시그니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랜드 아르바(Arva).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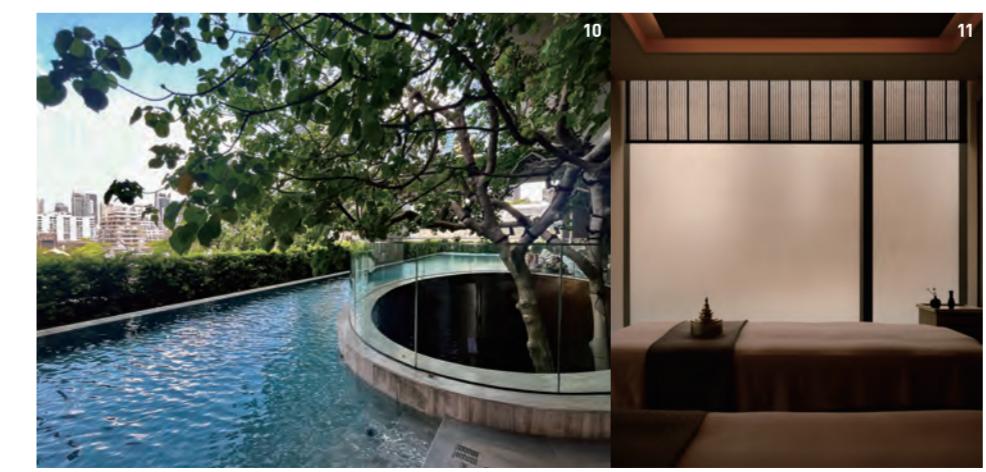
나이лер트 집안에서 과거 상업의 거점 역할을 했던 현재의 부지가 사서 집을 짓고 아담한 공원을 조성한 시기는 무려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콕에서 이곳은 '나무들의 센터(the center of trees)'나 마찬가지예요. 흔히 볼 수 없을 만큼 수령이 오래된 아름다운 나무들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죠.' 유례한 곡선의 가지들을 길게 드리운 침추리나무도 감상할 겸 공원을 가로면서 정원 지킴이의 설명을 듣다가 고개를 돌려 호텔 파사드를 올려다 보니 그가 말한 '생명력의 실제'가 거기에도 깃들어 있었다. 파사드 중간을 뚫고 초록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웅장한 나무의 일부분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이лер트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는 1백 세가 출렁 넘는 솜풍나무인데, 36층짜리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52개 스위트룸과 34개 레지던스로 구성된 건축 설계는 키가 32m 가까이 되는 이 엉물을 중심으로 펼쳐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호텔의 수호신처럼 버티고 있는 이 드직한 솜풍나무의 일동이 레지던스 정원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고, 호텔 투숙객들은 인피니티 풀이 있는 공간에서 그 늠름한 자태(중간 기둥)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연 속 조화를 통한 '힐링의 미학'을 실천하는 아만의 고집

이처럼 녹음을 위시한 자연의 미학은 객실과 아트리움, 레스토랑, 웰니스 공간으로도 과하지 않게 이어진다. 럭셔리 호텔업계의 문법을 차분히 구축해온 디자인 구루 중 하나인 장-미셀 게티의 손길이 달았는데, 11층부터 18층까지 포진하고 있는 객실은 그 자체로 차분한 색조와 편안한 세련미가 깃든 은화한 디자인 감성이 돋보인다. 나무의 결을 본뜬 부드러운 곡선 장식을 벽에 두르고 있고, 일부는 바나나나무 껍질을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목재를 활용했다. 모든 객실이 스위트인 만큼 여유로운 공간에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내다보이는 사원한 통창, 덕시아나 브랜드의 매트리스를 깐 침대 말고도 데일 베드·소파 베드, 폭신한 스톰 등 휴식을 위한 다양한 가구를 배치해 힐링을 돋운다. 3개의 아트리움을 수놓은 커다란 설치 작업은 저마다의 감성으로 자연을 연상시킨다. 또 로비층에 있는 1872 라운지 바(bar)의 상단을 장식한 구름 모양의 설치물을 태국 전통의 그림자 연극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지녔다고 하는데, 치앙마이 지역의 장인들이 나무 패널과 가죽 소재로 빚어낸 작품이다. 심지어 첨단 인버디 머신, 복싱, 수소수 전용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공간의 벽자까지 천 소재에 핸드 페인팅을 입혀 자연스럽고 따스한 분위기를 풍긴다. 피트니스 공간을 비롯해 의사까지 동반한 전문 테라피를 제공하는 '허티튜드(Herititude)' 클리닉과 인피니티 풀, 타이 정통 기법과 쌀을 활용한 기법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반야(Banya) 스파 하우스 등을 갖춘 아만 스파 & 웰니스 센터(Aman Spa & Wellness)는 면적이 1,500㎡(약 4백53평)에 이르며 조용한 인락함을 지향하는 디자인을 구비해, 산책과 운동을 통해 심신의 조화를 꾀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 굳이 호텔 밖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물론 도심의 소핑카와 가깝고 요즘 '핫한' 방콕 '페피'들의 전당인 '디올 골드 하우스'의 경우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법하지만 말이다.

'미식의 메카' 방콕다운 맛의 향연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소는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늘 기억의 밀도에서 중요한 존재인 '미식'이다. 먼저 로비층(9층)에 있는 아만의 시그니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랜드 아르바(Arva)에서는 명성에 걸맞은 오전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투숙객들이 아침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조식에도 부폐 대신 정갈한 단품 메뉴를 선사하는 아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데, 에그 베네딕트 같은 글로벌 인기 식단뿐 아니라 쌀죽인 '족(jok)'을 비롯한 태국 현지식도 일품이다. 살막만 씹어도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을 기분 좋게 김싸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요리라든가 흔히 쓰는 가루 대신 태국산 '짠' 초콜릿을 알고도 진하게 입힌 티라미수 등 재료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도록 메뉴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872에서도 다양한 메뉴의 식사와 신선한 제철 과



10

일을 활용한 아름다운 디자인의 힐링을 즐길 수 있다. 또 19층에 있는 일식과의 인연이 깊은 아만답게 철판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히오리(Hiori)', 스시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세스이(Sesui)'가 나란히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직접 공수한 와규, 성게, 참치 등을 비롯한 일식과의 인연이 깊은 아만답게 철판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히오리(Hiori)', 같은 층인 19층에 스시 오마카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스이(Sesui)도 있다.

10 나이лер트 집안이 소중히 여기는 생활적인 솜풍나무가 호텔의 드문한 수호신처럼 인피니티 풀 위에 자리한다.

11 1년이 출렁 넘는 방콕에서 귀여워지는 나무다.

11 면적 1,500㎡(약 4백53평)에 이르며 조용한 인락함을 지향하는 아만 스파 & 웰니스 센터에는 피트니스는 물론 첨단 기법을 동원한 테라피, 마사지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12 아만 나이лер트 방콕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시야에 들어오는 디올의 팝업 매장 골드 하우스,

글 고성연(방콕 현지 취재)





SWEET LIP

에스티 로더 빙수 블리스 메이크업 컬렉션
- 퓨어 컬러 젤리 글로우 밤 pH 반응 립밤으로
각자의 입술에 맞는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컬러로 연출해준다. 3g 3만8천원대. 문의
02-6971-3212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Editor's Pick

따스한 빛의 색조와 자연을 연상시키는 향으로 더없이
차분하게 맞이하는 6월의 신상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VERY ROSE

트루동 썬더 헤이즈
클래식 캔들 상큼한
레드베리 향에 앱솔루트
로즈와 마스크 향이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부드러운 향기를 선사한다.
270g 19만원대.
문의 02-6905-3324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COOL PINK

에르메스 뷰티 레 맹 에르메스 네일 에나멜 04
로즈 파파리온 투명한 핑크 컬러가 학사함을
더해준다. 기분 전환 겸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추천. 15ml 7만3천원.
문의 02-310-5174 _by 에디터 신정임

라부르켓 엑스폴리에이팅 바디 세럼 보습 효과부터 각질
제거까지 가능한 만능 보디 세럼이다. 젖어진 이웃핏에 신경
쓰이는 끝꼼지, 무릎에도 효과가 좋은 편. 120ml 8만9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김하얀



시세이도 싱크로 스킨 레디언트
리프팅 컨실러 201 라이트 크리미한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며 들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버된다.
2.7g 4만7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신정임



나스 뷰티 에볼루션 컬렉션 - 쿠드
아이섀도우 #사쿠라 리미티드 세이드로 네
가지 컬러로 구성해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으로
연출 가능하다. 1g×4 7만4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디올 NEW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버터 #105
펩타이드와 세리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립 트리트먼트로,
바르는 순간 느껴지는 민트 향과 촉촉한 보습감, 은은한
컬러가 일품이다. 10ml 5만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신정민

NEW PERFUME

샤넬 샹스 오 스플렌디드
고급과 장미 향을 머금은
상큼한 라즈베리 향이
은은한 화이트 마스크와
우디 향으로 이어진다
예상치 못한 아이리스
향으로 인도한다. 색다른
플로랄 향을 찾는다면
추천한다.
100ml 28만4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김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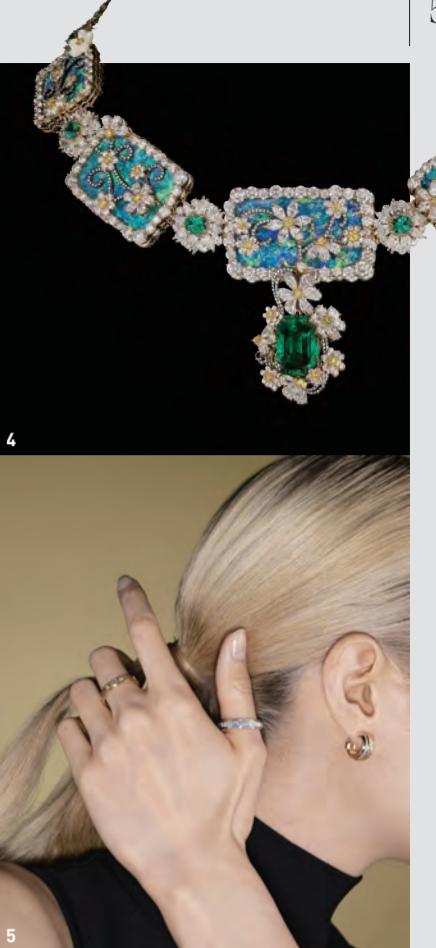
데코 팰리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포제션
주얼리 컬렉션을 출시했다. 어떤 조명에서는 눈부신
빛을 발하는 데코 팰리스 기법과 간결하면서도 세
련된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브레이슬릿, 링,
이어링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1668-1874

6 타사기 밸런스 다이아몬드 솔로 라인 제안
파인 주얼리 브랜드 타사기에서 6월, 전주의 달을 기념해
밸런스 다이아몬드 솔로 라인을 제안한다. 타사기의
대표 라인인 밸런스에 영롱한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더한 네크리스, 이어링, 링을 하나의 세트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7 록시땅 신라스테이 록시땅 협업 프랑스 프로방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록시땅과 신라스테이가 협
업해 갤러리 어메니티를 새롭게 선보였다. 신라스테이
전국 15개 지점(제주 제외)의 갤러리 어메니티를 록시
땅 대표 컬렉션인 '비녀나' 라인으로 적용하고, 연말
까지 아로마클로지 트레블 키트를 제공하는 릴랙싱
워드 록시땅 패키지를 선보인다.
문의 02-2054-0500

8 포멜라토 디 아트 오브 누드
포멜라토의 아이코닉한 누드 컬렉션을 기념하는 '디 아트 오브 누드'
팝업 행사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성수에서 성황
리에 마무리되었다. 젬스톤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누드(naked) 세팅과 컬러 젤리스 등 아이코닉한 디
자인부터 누드의 탄생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들을 선보였다. 문의 031-5170-2168

9 디올 크리스챤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전시회 파리 장식미술관을 시작으로 런던, 상하이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크리스챤 디올: 디
자이너 오브 드림스(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전시회가 4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
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
는 글로벌 건축 기업 OMA의 파트너 시게마쓰 쇼
이가 구상한 물입강 넘치는 공간을 배경으로 75년
이상 창조적인 활기로 기득했던 디올 하우스의 역



사를 만나볼 수 있다.
* 입장권은 2025년 4월 2일부터 디올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or.com/ko_kr/fashion/designer-of-dreams

10 위블로 빅뱅 유니코, 원 클릭 민트 그린 세라
미 뷰티로의 상징적인 빅뱅 유니코, 원 클릭 모델에
서 새로운 색상인 민트 그린 세라미크를 출시했다. 시
원한 파스텔 색조로 상쾌함을 더하는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한 루에 포인트 위치로 착
용하기 좋아 올여름 스타일링에 생기를 더하기에
제격이다. 문의 02-2118-6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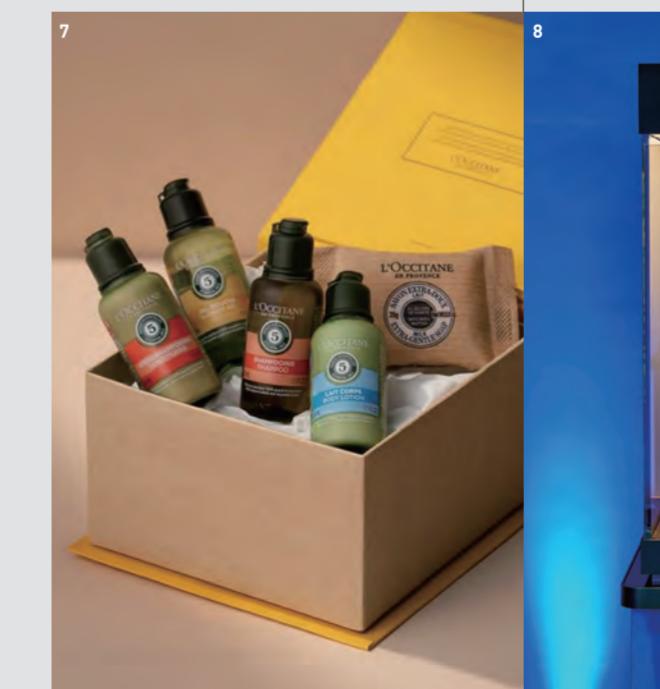
11 샤넬 뷰티 이드라 뷰티 마이크
로 세럼 샤넬 뷰티가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을 출시했다. 피부
에 수분감을 선사하는 카멜리
아-올레오 추출물을 함유한 블
루 캡슐, 영양을 풍부히 공급해
주는 카멜리아 오일을 함유해
새롭게 선보이는 투명 캡슐, 2
가지 마이크로 캡슐로 수분 장
벽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뛰어
난 수분 충전 효과로 최적의 피
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805-963

Showroom

3 시몬스 N32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에서 다가
오는 여름 무더위 극복템으로 N32 제품을 제안한
다. 천연 식물성 라인 카드 원단을 사용해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하는 N32 폼 매트리스와 아이슬란드
청정 지역의 유기농 해조류와 식이 섬유인 셀룰로
스를 함유한 아이슬란드 씨셜™ 소재가 특징인
N32 '아이슬란드 씨셜™ 화이버 필로우', '화이버 듀
벳'으로 쾌적한 숙면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www.simmons.co.kr

4 디올 파인주얼리 디오렉스큐즈 하이 주얼리 컬
렉션 디올 파인주얼리에서 하이 주얼리 디오렉스큐
즈(DIOREXQUIS) 컬렉션을 공개했다. 디올 주얼리
디렉터 빅토아르 드 카스텔란은 아름다운 풍경
(landscapes), 섬세한 부케(bouquets), 마법 같은
길라(galas, 연회), 세 가지 테마로 선보였으며 정교
한 디테일로 완성한 젠스톤과 다이아몬드 세팅이
특징이다. 문의 02-3280-0104

5 피아제 포제션 컬렉션 피아제가 시그너처 기법인



SATURDAY
2025.4.19 — SUNDAY
2025.7.13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DONGDAEMUN DESIGN PLAZA, ART HALL 1
DDP 아트홀 1관



11



DIOR

ROSE DES VENTS COLLECTION

온라인 부띠끄. Dior.com